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 개발

책임 연구자 : 소 수 연

공동 연구자 : 이 상 현

양 대 희

성 버 리

김 혜 영

문 소 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83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 개발

|인 쇄 : 2014년 12월
|발 행 : 2014년 12월
|발 행 인 : 권 승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96 / F. (051)662-3006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전우용사촌

<비매품>

ISBN 978-89-8234-548-7 94330
ISBN 978-89-8234-001-7(세트)

※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 개발
/ 책임연구자: 소수연 ; 공동연구자: 이상현, 양대희, 성벼리,
김혜영, 문소희.
-- 부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4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83)
권말부록: 품성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등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234-548-7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 (세트) 94330
인성 교육[人性教育]
아동 상담[兒童相談]
334.3-KDC5
362.7-DDC21 CIP2014036399

학교폭력,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최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비행행동의 원인을 품성의 저하에서 비롯된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접근은 동시에 청소년들의 좋은 품성 함양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있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품성은 하루아침에 청소년 혼자만의 노력으로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이를 일상생활에서 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1997년부터 전국 200여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들의 다양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보급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실 가운데 하나로 금년 초등학교 고학년에 초점을 맞춘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품성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는 물론, 품성계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교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품성함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련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작게나마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건강한 품성 함양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영인 선생님, 반석초등학교 김지용 선생님, 광사초등학교 최은심 선생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동연구자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상현 소장님과 본원의 연구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12월

원 장 권 승

최근 청소년 문제가 저연령화, 흉폭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 해체된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에 대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입시로 인한 경쟁에 내몰리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사회적 가치 체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수의 연구자들은 현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소년들의 품성을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교나 사회에서 함양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기는 발달 상 인지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다른 어떤 시기보다 품성계발에 적기이다. 그러나 품성(品性)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은 뿐만 아니라 연령마다 요구되는 덕목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구된 경우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다루어져야 할 품성 덕목을 도출하여 이를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첫째, 기획단계에서 문헌연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초등학교 교사 및 품성계발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추출된 광범위한 품성교육 영역 중 의미있는 영역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품성계발 덕목 유형을 분류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실시한 문헌연구와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구성 원리를 도출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셋째, 평가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초안을 시범운영하여 효과를 평가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 초등학교와 프로그램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보완 및 수정하였다.

도출된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덕목을 습득하고 계발하도록 한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품성 덕목으로 ‘나’, ‘우리나라와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 ‘책임-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이를 함양시킨다. 셋째,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초등학교들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과 학업성취와 발달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부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교실과 경기도 경기지역 초등학교 학생 4~6학년 43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이타성, 학교규칙 준수, 자기존중, 배려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지도자들이 평가한 프로그램 만족도 및 질적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그 시기에 필요한 품성 덕목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와 의견을 수집하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품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인을 정리하고, 품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문가의 인터뷰와 다차원적 군집 분석의 연구 방법을 통해 유목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상담 및 학교 현장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급 단위의 중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성을 높이하고자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로 40~50분의 짧은 시간에 하나의 덕목을 다루는 것은 많은 제한이 따랐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덕목별로 4~5회기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대상자들이 각각의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추가적 개발을 제안한다.

CONTENTS

I. 서론 _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 과제 3

II. 이론적 배경 _ 5

- 1. 품성의 정의 5
- 2. 품성 구성요소 및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7
 - 가. 품성의 구성요소 7
 - 나. 품성 프로그램 연구 13
- 3. 초등학생의 품성 교육의 중요성 및 실태 16
- 4. 선행 연구의 시사점 20

III. 연구방법 _ 23

- 1.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 23
- 2. 연구과정 24
 - 가.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26
 - 나.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 유형분류조사 결과 분석 34
 - 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 41
- 3.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 46
 - 가. 시범운영의 실행 46
 - 나. 시범운영의 평가 47

IV. 연구결과 _ 53

-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53
 - 가. 품성계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53
 - 나. 결과 요약 57

2. 프로그램 참가자 및 지도자 평가	58
가. 참가자 평가	58
나. 지도자 평가	59
다. 전문가 감수	62
3.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65

V. 요약 및 논의 _ 70

1. 연구 요약	70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72

| 참고문헌 _ 75

| 부록 _ 81

[부록 1] 품성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83
[부록 2] 품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84
[부록 3] 초등학생 품성계발 유형분류조사 덕목 진술문 목록	95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97
[부록 5] 이타성 척도	100
[부록 6] 정서조절 척도	101
[부록 7] 학교규칙 준수 척도	102
[부록 8] 자기존중 척도	103
[부록 9] 공감 척도	104
[부록 10] 배려행동 척도	105

| ABSTRACT _ 106

CONTENTS

| 표목차

표 1.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와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요소	8
표 2. 차원별 핵심 역량 및 덕목(천세영, 2012)	9
표 3. 블라지(Blasi)가 제시한 덕의 목록	10
표 4.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6 Pillars)의 덕목(josephsoninstitute.org)	12
표 5. 국내·외 선행연구의 품성교육 덕목	12
표 6. 포커스 그룹 참가자 일반사항	28
표 7. 품성 덕목의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	39
표 8.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 내용	45
표 9. 시범운영 실시 연구진 특성	47
표 10. 효과성 검증 연구설계	48
표 11. 측정도구	48
표 12.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49
표 13. 이타성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49
표 14. 정서조절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50
표 15. 학교규칙 준수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50
표 16. 자기존중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51
표 17. 공감능력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51
표 18. 배려행동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52
표 19.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이타성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54
표 20.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정서조절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54
표 21.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학교규칙 준수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55
표 22.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자기존중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55
표 23.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공감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56
표 24.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배려행동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56
표 25.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현장 활용성 평가(참가자)	58
표 26.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현장 활용성 평가(지도자)	59
표 27.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회기별 강점 및 보완 사항	60

표 28. 프로그램 회기별 전문가 감수 의견	64
표 29.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수정 내용	65
표 30. 최종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 내용	68

| 그림목차

그림 1. 교육부 인성교육 7대 핵심 덕목(2013)	9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24
그림 3. 본 연구의 개념도 연구 절차	35
그림 4.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 개념도	38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학교폭력, 미디어(게임,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자살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청소년 문제가 점차 다양화, 흉폭화, 성인 범죄화 될 뿐 아니라 그 연령이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2010년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시기에 처음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학생이 17.5%였으나 2012년에는 30.5%, 고학년(4~6학년) 시기에 학교폭력 경험을 보고한 학생도 2010년에 35.9%에서 2012년에는 47.8%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심각한 적응문제를 보이는 원인으로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어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입시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들 수 있다(Lee, 2003).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가치 체계의 혼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만연, 대중매체 등 다양한 청소년 유해환경 등이 난무하는 사회적 환경과 핵가족,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훈육의 부재 및 과잉보호와 같은 자녀교육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초등학생들조차 학업에 대한 부담, 친구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게다가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성발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학교에서도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대인관계 형성 기술,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기술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원희, 홍기칠, 김용조, 1999).

인성이란 인간의 성품(性品)을 뜻하는 말로,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을 의미한다. '성질'은 성격(personality), 즉 개인의 독특하고 교유한 특성으로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는 특정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의 양식'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품격'은 인간됨의 가

치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인격(character)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추구해야 할 품성이나 덕목, 마음씨 등을 의미하는 인품(人品)의 의미를 지닌다. 본래 품성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면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단 기간 내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성, 유연성 등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배려, 정직과 같은 도덕적 측면을 부단히 갈고 닦으면서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품성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품성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금명자, 장미경, 김은영, 김수리, 안희정, 2002).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교육부의 교육개혁안을 통해 인성교육이 신교육체제의 목표로 제시되면서 인성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 초 학교폭력으로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을 하고 이후 유사한 이유로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2013년 교육부에서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아(이시형, 1996) 학교 현장에서 품성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발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교정적 접근과 더불어 근본적인 육성 대책이 필요함을 깨닫고 1995년부터 청소년 도덕성 증진 및 회복을 목적으로 5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왔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서 청소년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요구로 사업 방향을 '품성계발'로 바꾸어 실시하였다(김진희, 양미진 및 김은영, 2000). 이와 같은 사업방향에 맞춰 「멋진 우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13개 중학교의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집단상담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효과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였다(김진희, 양미진, 김은영, 2000). 이후 2001년에는 2000년도에 개발된 「멋진 우리」프로그램 중 배려증진 부분을 발췌하여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급 단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배려증진을 위한 멋진 우리」로 수정하여 보급하였다(금명자, 김진희, 이소영, 200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배려 인지·정서 측면에서 긍정적인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다. 이후 초등학생 대상으로 자기조절에 초점을 맞춘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2003),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증진 프로그램인 「알콩달콩 마음나눔」(2008)이 개발되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2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이처럼 지금까지 국내의 품성관련 프로그램 중 공공기관에서 개발되어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을 통해 보급되고 있는 것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멋진 우리」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밖에는 개인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것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체계적인 개발 과정과 지속적인 효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기 특성과 문화적 경향을 반영한 품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품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교사와 부모가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덕목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및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해 경험적 자료를 추출하고 품성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현장에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년 간 차이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을 세분화하여 해당 연령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인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선행 연구 및 최근 사회 현상을 들여다 볼 때 청소년 문제가 시작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부턴 이후 특히 초등학교 5학년에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품성교육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10세경부터 도덕성에 대한 자율성 획득이 가능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과 도덕적 기준과 규범을 내면화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에 품성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덕목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품성교육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현장에 대한 다각적인 경험적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에 적합한 품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현장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다루어져야 할 품성 덕목을 도출하여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 및 상담 현장에 맞는 초등학교 고학년용 품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품성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및 관련 프로그램들을 검토,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에 함양되어야 할 품성 덕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자가 될 고학년 초등학생과 품성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품성계발 프로그램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필요한 품성 덕목과 현행 품성교육의 문제점, 프로그램 구성요소 등에 대한 심층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고학년 초등학생들의 품성과 이에 대한 내적 상태와 환경적 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여 현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필요한 품성 덕목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품성 덕목을 토대로 상담 및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품성의 정의

품성의 사전적 의미는 타고난 성품이며, 성품이란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14). 품성은 실생활과 다양한 학문에서 인성, 인격, 도덕성, 성품, 성격, 기질 등의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용어의 사전적 정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사전에서 조차 개념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김진희 등, 2000). 일반적으로 human nature는 인간의 본성, humanity는 인간다움, personality는 개인의 고유한 성격이나 특성, character는 개인의 품성을 주로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이와 같은 구별이 모두가 동의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인성과 품성의 개념적 정의가 연구마다 다르고 용어도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성과 품성을 포함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품성은 서양에서 ‘personality’보다는 ‘character’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개념은 개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행동의 규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김호권, 1977). Lasker와 Moore, Simpson(1980)은 품성을 ‘사회관계와 사회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한 과정과 원리’로, Lickona(1991)는 ‘도덕적인 인지, 느낌,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정의하였다. 또한 Astin과 Antonio(2004)는 품성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도덕적 판단에 대한 가치와 행동을 반영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그러나 Berkowitz와 Bier(2005)는 ‘character’의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인성과 품성을 정의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궁달화(1999)는 ‘한 사람의 마음의 바탕과 사람됨의 바탕’으로, 조난심과 차우규(2000)는 ‘인간이 갖추고 있는 어떠한 성향적 특징으로, 도덕적인 측면과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용래(2000)는 품성을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되며, 사람들을 구별해주

는 특징적인 사고·감정·행동의 양식'이라고 하였다. 박영태(2002)는 인성을 두 가지로 정의하였는데 '하나를 개인이 지닌 특성으로 타인에게 주는 뚜렷한 인상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술 혹은 능숙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인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상과의 특정한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표출되는 내면적 특성으로, 바꾸어 말해 인성이란 상호작용 기술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한편 금명자, 장미경, 김은영, 김수리, 안희정(2002)은 초등학생 대상의 품성계발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품성을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 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후 품성관련 국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견해를 토대로 품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희태(2011)는 '인성은 성품을 가리키며, 성품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이며 성질은 마음의 바탕이고 품격은 사람됨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2013)의 「인성교육강화 기본계획」에는 '인성은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성품, 기질, 개성, 인격' 등 추상적으로 사용하며, 사전적 정의는 '사람의 성품 또는 각기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며, 일반적 의미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바람직한 인간적 특성 또는 인격, 사람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품성을 정의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과 성격적인 측면, 그리고 행동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는 조작적인 정의가 요구된다(홍석영, 2013).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성과 품성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인성이나 품성의 의미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성품이 담겨져 있으며 가치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홍석영, 2013). 따라서 인성이나 품성은 선천적인 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가르쳐 습득될 수 있으며, 모든 시대를 아우르지만 특별히 그 시대의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기존 품성계발 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 하여 '품성'이라는 용어를 계승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품성을 개인적 자아의 측면보다 도덕적인 인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인격, 도덕성과 혼용하여 사용하며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상태를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한국청소년상담원, 2000)라는 기존의 정의에 사회 구성원이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의미를 추가하고자 한다.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한 이유는 학교나 사회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최종 목표가 결국은 개인의 윤리적인 사람됨을 넘어 학교나 사회에서 삶을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최근에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인류 및 환경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인 분위

기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성의 정의를 ‘개인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인적·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도덕적 덕목을 내면화한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품성 구성요소 및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가. 품성의 구성요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성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연구에서도 다양한 품성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성과 품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요소를 개관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까지 연구되어 온 국내 인성 및 품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허경철과 조난심(1994)은 1990년대 우리 사회에서 가치관 혼란과 도덕성 쇠퇴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대처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인성교육이란 각 개인이 바람직한 덕목을 내면화하여 덕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인격 속에 통합시킨 인간을 육성하는 것으로, 학교 인성교육의 우선적인 목표는 아름다운 덕성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적인 덕목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할 기본적인 생활습관으로써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각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덕목으로써 정직, 근면·성실, 자주, 우리의 도덕적 전통과 역사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덕목으로써 기본예절, 효도, 경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덕목으로 질서, 협동, 준법, 타인 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등을 강조하였다. 이후 조난심(2004)은 인성교육의 요소를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여 교과목 중 인성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와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요소를 추가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와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요소

개인적 요소		사회적 요소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	생명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경애 효도	도덕과 교육과정의 인성요소	예절 협동 준법 책임 타인배려 정의 공동체 의식 민족애 인류애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요소	자기 주도성 관용(개방성) 사고의 유연성	21세기에 요구되는 인성요소	타문화 이해

유병열(2008)은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기 위한 덕목들로 옳고 좋은 삶을 알고 판단하는 일과 관련된 덕목, 자신을 도덕적 존재로 바로 세우는 일과 관련된 덕목, 더불어 복된 삶을 사는 일과 관련된 덕목, 국가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과 관련된 덕목으로 도덕적 지혜, 자주, 성실, 절제, 배려 등의 덕목들을 강조하였다. 강선보 외(2008)는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인성과 인성교육의 개념은 현재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용되고 있으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인성의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세기형 인성교육은 관계성(상호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발달적 전인), 영성(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는 영성인), 생명성(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창의성(삶과 상황을 재창조하는 창의인), 민주시민성(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을 두루 갖춘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연관적으로 조화롭게 발달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안영진(2010)은 이해심과 배려, 존중, 공정과 관용, 협동, 사랑, 친절, 평화, 자신감, 성실과 믿음, 책임과 인내, 자기통제, 정직, 긍정적인 사고, 용기를 중심으로 품성교육을 구성하였다. 배미진(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과학영재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의 인성덕목을 통해 도덕 판단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천세영 등(2012)은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의 목표가 되는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인성을 세 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별로 핵심 역량 및 덕목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차원별 핵심 역량 및 덕목(천세영, 2012)

차원	역량	핵심 덕목	주요 내용
도덕성	▶ 핵심가치인식 ▶ 책임있는 의사 결정	정직 책임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사회성	▶ 사회적 인식 ▶ 대인관계	공감 소통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파악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소통하는 능력
감성	▶ 자기인식 ▶ 자기관리	긍정 자율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며,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실행하는 능력

최근에는 교육부도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덕목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덕목들을 설정하였다(2013). 구체적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관련된 정직, 책임,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존중, 배려, 공감, 사회국가와의 관계를 위한 소통, 협동을 품성교육의 7대 핵심 덕목으로 보았다. 이중 정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생활영역에서 대표적인 도덕적 덕목이며, 친밀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형성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에서도 정직을 인성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덕목으로 선정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C 2011-7-1). 교육부(2013)의 핵심 덕목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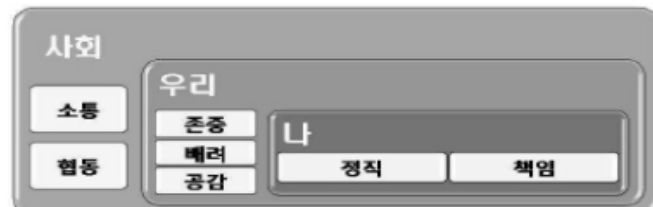


그림 1. 교육부 인성교육 7대 핵심 덕목(2013)

국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품성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Lickona(1991)에 의하면, 도덕성은 도덕적 지식,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도덕적 지식이란 이성의 인지적 측면으로, 도덕적 각성, 도덕적 가치 이해, 조망수용, 도덕적 추리, 의사결정, 자신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그리고 도덕적 감정은 양심, 자존감, 겸손, 감정 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 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적 행동은 능력과 의지와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도덕적 행동은 앞의 도덕적 지식과 도덕적 감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이 도덕적인가를 알고 느끼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느끼는 것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행

동을 구성하는 있는 ‘능력’은 도덕적인 판단과 감정을 종합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박효정 외, 2000).

Blasi(2005)는 도덕 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이란 개인이 지닌 덕과 악덕, 즉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 반응하여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경향성과 전형적으로 동일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Blasi는 덕들을 일반성(generality)의 정도에 따라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한 후, 이를 각각 낮은 수준(lower-order)과 높은 수준(higher-order)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수준은 도덕적 중요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심리학적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즉 낮은 수준의 덕들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높은 수준의 덕들은 동기부여와 인성 특질의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덕들은 안정성과 강한 동기를 얻기 위해 적어도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의 덕들을 필요로 한다. Blasi가 제시한 덕의 목록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블라지(Blasi)가 제시한 덕의 목록

낮은 수준의 덕(lower-order virtues): 도덕적 의미 부여	
공감(empathy)	순종(obedience)
동정심(compassion)	준법(law-abidingness)
예의(politeness)	시민정신(civic-mindedness)
공손(respectfulness)	정직(honesty)
사려 깊음(thoughtfulness)	양심(conscientiousness)
친절(kindness)	진실성(truthfulness)
관대(generosity)	공정성(fairness)
이타주의(altruism)	정의(justice)
우정(friendship)	용기(courage)
충성(loyalty)	겸손함(humility)
높은 수준의 덕(higher-order virtues)	
의지와 관련된 덕(will cluster)	자기 통합성과 관련된 덕 (integrity cluster)
인내력(perseverance)	책임감(responsibility)
결단력(determination)	책무감(accountability)
자기규율(self-discipline)	자기일관성(self-consistency)
자기통제(self-control)	진솔함(sincerity)
의지력(willpower)	자기 통합성(integrity)
	지조 있음(principledness)
	자신에게 솔직함(transparenty to oneself)
	자신에게 정직함(honesty with oneself)
	자율성(autonomy)

또한 도덕 심리학 및 아동발달 영역에서 Michele Borba(2001)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자 확고한 윤리적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올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써 ‘도덕 지능’(moral intelligence)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덕 지능에는 7가지 핵심 덕목, 즉 공감능력, 분별력, 자제력, 존중, 친절, 관용, 공정함이 포함된다.

최근 Lickona 와 Davidson(2005)은 “수행적 인성(performance character)”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을 상호 구분하면서 인성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기술하였다. 인성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근본적이면서 상호 연결된 특성을 지닌다. 우선 인성교육의 핵심 개념으로 간주되어 온 도덕적 인성은 “관계지향적(relational orientation)”이고,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과 같이 성공적인 개인 상호 간 관계형성 및 윤리적 행위에 필요한 자질로 구성된다. 도덕적 인성은 타인들과 우리 자신들을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의 윤리적 삶을 위해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해주는 반면, 수행적 인성은 “과업완수 지향적(mastery orientation)”이고, 노력, 근면, 인내력, 강력한 근로윤리, 긍정적인 태도, 창의성, 그리고 자기규율과 같은 자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행적 인성은 학과 공부, 공동학업 활동, 직장, 그 외에 자기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Lapsley & Power, 2008). Lickona 와 Davidson에 따르면, 수행적 인성은 유혹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일련의 품성들이며, 수행적 인성 그 자체만으로 훌륭한 사람(good person)이 되기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Lickona 와 Davidson은 이러한 품성들이 핵심 윤리적 가치라기보다 핵심 윤리적 가치들을 실행하도록 사람들의 능력을 지원해주는 개인적 특성에 가깝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인성교육 기관인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에서는 ‘여섯 기둥 덕목’(6 pillar virtues)¹⁾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26쪽에서 재인용.

표 4. 조셉슨 연구소의 '여섯 기둥'(6 Pillars)의 덕목(josephsoninstitute.org)

주요 덕목	하위 덕목	포함 요소
진실성	① 정직하기 ② 속이거나 흠치지 않기 ③ 믿을만하기-약속지키기 ④ 옳은일을 할 수 있는 용기 갖기 ⑤ 좋은 평판 다지기 ⑥ 충성-가족, 친구, 국가에 대하여	용기 충성
존중	① 타인을 존중하기 ② 차이를 관용하고 수용하기 ③ 예의를 갖추고 나쁜 말을 쓰지 않기 ④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 것 ⑤ 위험하거나 때리거나 상처입히지 않기 ⑥ 화냄, 모욕, 반대에 평화롭게 대처할 것	관용 인내
책임	① 할 일을 할 것 ② 미리 계획할 것 ③ 끈기있게 해볼 것 ④ 항상 최선을 다할 것 ⑤ 자기 통제 ⑥ 자기 수양 ⑦ 결과를 생각하고 행동 할 것 ⑧ 책임 있는 말과 행동, 태도를 가질 것 ⑨ 좋은 모범이 될 것	인내 절제 신중함
공정성	① 규칙대로 놀기 ② 차례를 지키고 공유할 것 ③ 열린 마음과 경청하기 ④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 것 ⑤ 다른 사람을 마구 비난하지 말 것 ⑥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것	수용성 진실성
배려	① 친절할 것 ② 공감을 갖고 배려를 보여줄 것 ③ 감사를 표현할 것 ④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것	
시민 의식	① 학교와 지역사회의 개선을 위해 동참할 것 ② 협력 ③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할 것 ④ 사회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 것 ⑤ 좋은 이웃이 될 것 ⑥ 법과 규칙을 지킬 것 ⑦ 권위를 존중할 것 ⑧ 환경을 보호할 것 ⑨ 자원봉사를 할 것 자연사랑	자연 사랑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자의 관점에 따라 품성교육의 주요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국내·외 선행연구의 품성교육 덕목

연구	덕목
이원영 외 (1992)	청결, 물질만능배제, 근면, 예절, 인내, 타인존중, 협동, 양보, 긍정적사고, 타인신뢰, 주제 의식, 공동도덕준수, 정직, 생명존중, 책임감, 전통윤리존중
허경철, 조난심 (1994)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청결위생, 물자절약, 정직, 근면·성실, 자주, 기본예절, 효도, 경애, 질서, 협동, 준법, 타인 존중, 책임, 봉사, 정의감
유병열(2006)	실천자로서의 도덕적 지혜, 자주, 성실, 절제, 효도, 예절, 준법, 배려, 책임, 협동, 정의, 애국애족, 인류애
강선보(2008)	관계성(상호 관계적 삶을 추구하는 발달적 전인), 영성(초월적인 것을 체험하는 영성인), 생명성(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인), 창의성(삶과 상황을 재창조하는 창의인), 민주시민성(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
안영진(2010)	이해심, 배려, 존중, 공정과 관용, 협동, 사랑, 친절, 평화, 자신감, 성실과 믿음, 책임과 인내, 자기통제, 정직, 긍정적인 사고, 용기
교육부(2013)	정직, 책임, 배려, 존중, 협력, 소통, 협동
배미진(2014)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Lickona(1991)	존중, 책임감, 양심, 자존감, 겸손, 감정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통제
Berkowitz, Grych(2000)	자기통제, 감정이입, 사회적응, 자존감, 사회적 기술, 순종, 양심, 도덕적 추론, 정직, 이타심,
Lickona, Davidson(2005)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노력, 근면, 인내력, 강력한 근로윤리, 긍정적 태도, 창의성, 자기규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성교육의 핵심 덕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학자의 관점에 따라 품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출되는 덕목의 요소들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첫째, 품성교육의 덕목이 연구자들의 피상적인 합의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며, 둘째, 덕목들의 의미에 대해 해석이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안에 덕목을 편성하고 배열하는데 심리학, 교육학적으로 적절한 고려를 하였는지, 예를 들어 발달단계에 따라 구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점검해야 보아야 한다. 품성교육의 구성요소를 선정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오류들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유행을 바탕으로 품성교육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품성 프로그램 연구

1) 국내 프로그램

품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근에는 교육 과정에 ‘창의·인성 교육방법’을 접목시켜 교과별로 운영하기도 한다(교육부, 2011). 즉 품성교육 프로그램을 학생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동아리, 독서, 문화예술, 체육, 인턴십, 봉사활동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입학사정관의 활용 자료로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품성에 대한 정의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되고 개발되기보다는 구조나 구체적인 개념 설명 없이 학교현장 연구의 목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이나 신뢰할만한 단체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대상의 인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개발한 ‘함께 키우는 인성나무(IU2W) 프로그램’으로, 교육 대상이 아동임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쉽고 보다 실천 가능한 단어로 인성의 12가지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사회의 기본 객체인 ‘나’와 관련된 인성요소(기쁨, 감사, 성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과 아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래 친구인 ‘너’와 관련된 인성요소(존중, 약속, 어울림), ‘이웃’과 관련된 인성요소(용기, 정직, 협동),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관련된 인성요소(사랑, 배려, 나눔)로 구성되어 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3). 그러나 교육 대상이 아동임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수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 내용

이 많아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둘째,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과 서울대학교 도덕심리연구실이 공동 개발한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은 도덕성, 셀프리더십, 정서능력 및 긍정적 자아개념 등이며, 구체적인 활동은 초등학교 고학년 영재를 위한 6대 덕목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의 6대 덕목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도덕적 역량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덕목으로 보고 있다. 각 덕목마다 3~4차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고, 집단형 프로그램과 개별형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총 20차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2009). 그러나 영재의 지적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 학습자 모형, 문제중심 학습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에서 개발한 ‘나나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정신 건강의 심각성을 지각하고,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자살률 증가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 예방과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구체적인 생활기술을 지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었으며,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관리 기술, 문제해결 기술, 자기조절 기술의 발달을 목적으로,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다(밝은 청소년, 2013). 하지만 교육내용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예방에 목적을 둔 생활기술 습득에 초점화되어 있어 품성의 행동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멋진 우리’는 우리사회의 비도덕성과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된 도덕성 증진사업이 2000년부터 청소년 품성계발로 개념을 확대하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멋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의 목표를 인격 혹은 품성계발로 보고, 품성이 도덕적 인지,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행동의 세 가지 요소에서 발현되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 Lickona(1991)의 통합적인 품성교육론에 입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금명자, 김진희, 이소영, 2001). 특히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덕목들 중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의 지도자, 전문가, 품성계발 교수요원 등의 자문 및 청소년들에게 면접, 품성 설문조사를 거쳐 ‘정직, 배려, 자기조절’을 대표 덕목들로 선정하고 이러한 덕목들을 인지, 정서, 행동 3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방법을 프로그램화 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개발된 지 14년이 되어 최근의 청소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국외 프로그램

국외에서도 초등학교의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이며 도덕 발달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 수십년간 개발되어 축적되어 왔으나 ‘품성(charact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프로그램은 극소수이다. 품성교육, 사회-정서 학습, 학교 기반 문제예방, 시민성 교육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육에 사용되는 방법이나 이론적 기반, 측정된 결과들은 대부분 유사하다(Berkowitz & Bier, 2005). 본 연구에서는 해외 프로그램 중 품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품성과 유사한 영역들을 교육하는 학교 기반 프로그램 중 과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Positive Action(PA)은 학령기 이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년별로 개발된 품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개념 이론에 입각하여 긍정적 사고-행동-감정 순환의 자기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학교 교사에 의해 진행되며 긍정적인 신체적·지적 활동들, 자신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행동들, 즉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자기 자신과 타인들에게 정직하기, 지속적인 자기향상을 내용으로 하여 문제해결, 의사결정, 학습기술, 자기조절, 인적자원 관리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Snyder et al., 2012). 둘째, Child Development Program(CDP)은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으로 학교가 배려하고 지지적이고 협동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의 촉진을 통해 학교 응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 배려하기, 효과적인 의사소통하기 등이며 이 밖에도 학생, 부모, 학교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비경쟁적인 활동, 긍정적인 관계 및 학업목표 달성을 위한 교차연령/교차학년 buddies 활동,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olomon et al., 2000). 셋째, The ESSENTIAL Curriculum(Project ESSENTIAL)은 부모님과 선생님을 훈련하여 아동들의 진실성과 진정한 자기존중감을 개발하도록 하는 학교기반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감, 목표설정, 자기성찰, 인내에 관한 기술들을 배우며, 진정한 자기존중의 의미,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자기 및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성과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그 노력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도덕적인 문제 해결 실습, 세상의 위험, 불행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Dunn, 2014). 넷째, I Can Problem Solve(ICPS)는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초기 아동들에게 생길 수 있는 충동성,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과 같은 고위험 행동들을 예방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게임, 이

야기, 인형, 그림, 역할극 등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문제해결 어휘 습득,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이해, 대안적 해결책과 행동의 결과 생각하기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Shure, 2001). 다섯째, Peaceful School Project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교내 평화의 중요성, 감정의 이해, I-message를 이용한 감정표현 등을 다룬 The Peaceful School, 이완 및 호흡훈련, 심상훈련이 포함된 The Peaceful Room, 학급 내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문제점, 문제해결 연습,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를 포함한 Anti Bullying Programme으로 구성된다(Twemlow et al., 2001). 여섯째, Teaching Students to be Peacemakers(Peacemaker)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조성자(Peacemaker)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갈등 이해 교육, 갈등 협상 방법 교육, 친구들과의 갈등 중재 방법 교육, Peacemaker 프로그램 실행, 연간 협상 및 갈등중재 기술 단련 등 5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Johnson & Johnson, 2001). 일곱째, Peacebuilder는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동들 간의 물리적, 언어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부모 교육을 우선시하여 매일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교사에게는 학교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며 지역사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Flannery et al., 2003).

3. 초등학생 품성 교육의 중요성 및 실태

1) 초등학생 품성 교육의 중요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품성의 함양은 개인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르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가치와 장점은 물론 자신의 부족함도 인식하게 하여 올바른 자기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차원 으로서는 자기조절을 통해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현 하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로 나타나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원용희, 2009). 따라서 좋은 품성을 함양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현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2013년 흥사단 투명한운동사회본부가 초·중·고 청소년 2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10억원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으며, '이웃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다만 잘살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학교폭력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사이버폭력과 같은
 방식으로 음성화, 지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교육부, 2014).
 2014년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2012년 폭력 피해(폭행·갈취·협박·왕따 등)를 경험한 중·
 고등학생의 비율은 5.6%로, 전년(6.7%)에 비해 1.1%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폭력 피해 이유
 로 '특별한 이유 없다'가 51.8%로 가장 많아 오히려 무차별적이며 공격적인 폭력 양상이 뚜
 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유없는 폭력 행사는 전년(42.5%)에 비해 9.3%포인트나 늘
 어나 이유없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이 잦아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 2014).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품성교육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품성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특성을 파악하여 품성
 교육의 투입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며,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품성교육은 초등학교 시기
 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발달적인 측면에서 초등학교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급격한 정
 서적, 인지적 변화가 생기며,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이다(Drubach, 1999). 또한 미취학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또래와의 관계형성
 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역할과 행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어떤 시기보다 체감하는
 스트레스가 높아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희정, 조운주, 2010; Akos,
 2002; Elias, 2002). 초등학생들의 심리적·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인관계, 정신건강,
 성격 등의 품성 관련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013)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후 일탈에 대한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는 점(권은영, 정현희, 2011)에서 초등학교 시기가 품성교육이 필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때 형성되는 품성은 청소년기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품성의 형성과 초기청소년기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중
 학교 입학 이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시기의 개입이 필요하다(조한무, 엄혁주, 2014).

또한 에릭슨의 심리발달이론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심
 리발달의 여덟 단계 중 제 4단계가 6세부터 11세까지로 초등학생 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단
 계는 자아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은 기초적인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
 술을 습득하게 되면서부터 가족의 범주를 벗어나 더 넓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유용한 기술

들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며 이를 숙달하고자 한다. 만일 이 시기에 순조롭게 근면성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청소년은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열등감은 전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나 혹은 학교나 사회가 청소년에게 편견적인 태도를 취할 때 발달되기 쉽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생의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예절, 초보적인 가치와 규범을 지키지 못할 때 바람직한 인격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초보적인 행위 규칙과 그 정신을 익힐 수 있는 시기로서 중요하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에 품성에 대한 개념이 내면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이루어지면 다른 시기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초등학교 시절은 인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꾸준한 노력과 관심으로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성취하려는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세분화된 행동 규칙을 마련하여 그것을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나 목표로 제시해 주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인성 발달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강하, 2009).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직 부모나 교사 등 성인에게 의지하며 성인들의 영향 속에서 사회화되는 시기로, 청소년 중기나 후기에 비해 성인의 지도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품성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다.

이와 같이 발달이론이나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기가 바람직한 품성을 습득하는데 결정적인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2) 초등학생 품성 교육의 실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등학생 시기가 품성 함양에 결정적 시기라면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인성 또는 품성과 관련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은 지, 정, 의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육되어야 한다(남궁달화, 2002). 지, 정, 의의 조화와 통합된 발달은 인간됨 또는 인간다움의 형성에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교과를 통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과 내용 관련’과 ‘수업 과정 관련’으로 나누어진다. ‘교과 내용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교과 내용 본래의 취지 및 성격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각 교과 내용 중 인성 교육에서 추구하는 덕목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룰 기회가 있을 때에는 관련 덕목을 충분히 다룬다. ③ 학교에서 재량 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가능하면 인성교육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다룰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다음으로 '수업 과정 차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 자신이 평소에 용의 단정이나 언어 사용 등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수업 시간의 시작과 끝을 철저히 지키고, 숙제 등과 같은 학생들과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준법정신과 책임 의식을 갖도록 지도한다. ③ 수업 중 학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발표 기회를 고루 분배하는 등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질문과 사고를 유도하여 자주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⑤ 개별적인 경쟁의 기회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협동적인 학습 기회 등을 마련하여 개성의 신장과 아울러 협동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교과 교육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교과에 인성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는 것과 학교생활 및 수업 시간에 교사의 태도를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별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특별 활동과정에서는 특별 활동의 목표를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인 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의 자치, 자율 능력,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협동심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능력, 잠재 능력과 특기의 신장 계발, 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 심신 단련을 통한 인내심과 의지력 배양, 학교와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 의식, 책임감, 협동 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특별 활동의 내용 체계는 특별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따른 활동 내용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이다. 생활지도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활동일 뿐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정서적, 행동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성교육을 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생활지도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지도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생활지도는 주로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이라는 차원에 초점을 두으로써 주로 인지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는 학습지도와 함께 교육활동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전통적으로 생활지도는 학생조사활동 정보활동, 추후활동, 상담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기존의 생활지도가 병리적·치료적인 모형

에 근거하여 소수의 ‘문제아’를 ‘치료’하고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달리 건강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잠재력 계발,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전인적 인간 발달과 전인적인 건강증진, 건전한 민주시민의 육성에 목표를 둬서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별도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연관된 인성교육 외에 학교 차원에서 계획하여 운영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학교의 실정이나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학교에서 추진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교사와 학급 구성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되기도 한다. 초등학교의 인성교육은 수업활동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활동 영역이다.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보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전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 발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학교교육의 통합된 일부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성교육 영역으로 교육지도, 직업지도, 성격지도, 건강지도, 사회성지도, 여가선용지도, 도덕지도, 종교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강하, 2009)

4. 선행 연구의 시사점

이상 위에서 제시된 국내·외 품성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의 품성 계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단시간 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품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구조화 없이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지속적인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외의 초등학교 대상 품성관련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도덕적 덕목을 강조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를 기반으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사회 기술, 자기이해 및 자기 관리, 문제해결, 의사결정 등 광범위한 사회·정서적 교육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전략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교육부터 전문가 양성, 또래 간 상호작용을 활용한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유도 등 다양한 전략을 선별하고 혼합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인성계발을 위한 심리교육의 이론적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도덕적 규범과 덕목들을 내용으로 제시하여 내면화시키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학년이 될수록 도덕적 규범과 덕목의 실천위주의

습관화 방향에서 도덕적 자율성과 판단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이원희 외, 1999).

또한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단기간의 짧은 프로그램을 지양하며 품성을 내면화하고 도덕적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 자체로서만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 과정 속에서의 연대와 지역사회 공동체에서의 적용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홍석영, 2013). 장영은(2013)은 품성교육 활성화에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타인배려, 감정 조절, 질서, 정직 등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어야 하며,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자아존중감, 책임감, 다양함에 대한 존중, 시민 의식 등으로 품성교육의 내용의 중심을 이동하는 것을 강조하며, 학년별 및 수준별 인성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품성과 관련된 수많은 도덕적 덕목 중 현재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청소년의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의 인성 및 품성 함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성이나 품성의 개념이 연구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용어도 합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으며 이 시기 청소년들이 특별히 함양해야 할 덕목의 선정이 근거 없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청소년들의 품성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꼭 필요한 품성 덕목을 선정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품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높인다.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품성에 대한 개념의 광범위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성 및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이론적인 근거가 빈약한 채로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증해 온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코나와 데이비슨(Lickona & Davidson, 2005)의 품성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수행적 품성(performance character)”은 학업, 직장, 그 외에 자기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데 필요한 자질로, 유혹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의미하는 품성이다. 즉 개인 내적인 품성을 의미한다. 반면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은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과 같이 성공적인 개인 상호 간 관계형성 및 윤리적 행위에 필요한 자질로, 타인과 자신을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의 윤리적 삶을 위해 진실성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해주는 관계적 품성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품성의 요인이 크게 개인적인 품성과 관계 품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리코나와 데이비슨의 이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개인적 품성과 관계적 품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겠다.

셋째,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초점화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인성이나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연령이 있다. 다양한 발달 이론과 경험에 따르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품성교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특히 급격한 인지 발달로 도덕성을 내면화하는 것이 주요 과업인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즉 초기 청소년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인 4학년부터 6학년생들의 품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프로그램의 개발 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용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구성, 실행 및 평가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품성의 개념을 규정하고, 최근까지 개발된 품성관련 프로그램 연구와 초등학생의 심리·환경적 특성 관련 연구들을 탐색함으로써, 현시대 초등학생 대상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품성교육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조사를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념도 조사를 진행하여 광범위한 품성덕목들 가운데 현시대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덕목들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진행한 선행연구 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개념도 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원리를 도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조직하고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초안을 제작하였다.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구성단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사전, 사후 품성을 분석하였고 통제집단과 비교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평가를 받았으며, 품성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검수를 받아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총 5인의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청소년상담관련 분야 실무자로 박사 1인 석사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해왔으며 초등학생의 심리·행동적·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들이다.



그림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2. 연구과정

본 연구는 초등학교 대상 품성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초등학교가 개발해야 할 품성덕목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품성덕목을 개발시키는데 효과적인 도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외 품성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품성의 정의 및 구성요소와 관련된 요인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초등학생 품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성 요인 도출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본원에서 양성한 품성 계발 프로그램 지도자 대상 2그룹,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 2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19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은 개념도 분석에 사용된 품성덕목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품성의 실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 분석은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진의 합의 과정을 거쳐 정보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주제별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결정한 뒤,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임의적인 추론을 배제하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들이 직접 한 말을 하위범주 별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절차를 거쳤다.

셋째, 광범위한 품성교육 영역 중 의미있는 영역을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 유형을 분류조사를 진행하였다. Kane과 Trochim(2007)이 제시한 개념도 방법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미지, 단어 등 자료 간의 암묵적 관계를 분석하여 심상자극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되는 원리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론이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들을 검토하여 64개의 문장을 추출하고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장들을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을 유형화하고 분류원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자신이 구성하는 방식대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관점과 경험에 근거한 개념 구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할 수 있으며(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확립된 이론체계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의 연구 개념의 탐색에도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경화, 최윤정, 2007; Paulson et al., 1999).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품성' 관련 문헌 연구들 또한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품성의 개념과 덕목들이 학자의 관점에 따라 모두 상이하게 선택, 분류되어 품성프로그램에 적합한 덕목과 덕목들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주체이자 대상인 현장전문가와 초등학생들이 어떠한 덕목을 품성이라는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개념도 연구의 절차에 따라 선행 연구문헌 및 초등학생 품성교육 현장전문가 19명 및 초등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품성계발 덕목들을 검토하였으며 그중 60

개의 품성계발 덕목 문장들을 추출하여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류하게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을 유형화하고 분류 원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넷째,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후 구성안을 확정하고, 현장 품성교육 전문가들의 초등학생 대상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받아 수정 보완하여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가.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그룹 참가자들 간의 상호작용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Morgan, 1998).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참가자 간의 토론 주제는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며, 자료는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된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참가자의 의견일치나 응답자 비율과 같은 정량적 분석보다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생한 경험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따라서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그룹의 인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룹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4명에서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며 풍부한 자료 생성을 위해 3개 그룹 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rueger & Casey, 2009). 토론 시 진행자는 집단원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며 인터뷰 실시 전 진행방법과 진행내용을 계획하고 숙지하여야 한다(이영선 외, 2013).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초등학생의 발달 양상 및 특성에 적합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014년 6월~7월, 본원에서 양성한 품성계발 프로그램 지도자 대상 2그룹,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 2그룹, 총 4그룹을 선정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참가자 선정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상담복지센터 등에서 품성 또는 인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대상을 제한하였으며,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 청소년 품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최소 15회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참가자의 특성은 품성계발 프로그램 지도자 9명, 초등학교 교사 10명으로

총 19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6명, 40대 9명, 50대 이상 4명 이었고, 학력은 대졸 4명, 석사수료 3명, 석사졸업 9명, 박사수료 2명, 박사졸업 1명이었으며, 경력은 3년 이상 5년 이하 4명, 6년 이상 10년 이하 4명, 11년 이상 15년 이하 7명, 21년 이상 4명 이었다.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을 위해 청소년 품성에 대한 문헌연구와 연구진들의 논의를 통해 반 구조화된 면접용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Krueger와 Casey(2009)가 제시한 질문방식과 과정을 참고하여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으로 설정하여 질문의 범위를 1차적으로 구성한 후, 연구진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최근 초등학생의 품성,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시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품성의 차이, 현장에서의 품성교육 운영 실태, 품성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시 효과적이었던 경험과 어려웠던 경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제안 등으로 구성되었다. 인터뷰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직접 진행하였는데, 면접 진행자들은 전문 상담자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과 상담 전공 석사학위 및 3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이 있는 4명이다.

인터뷰는 그룹별로 약 1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터뷰 장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회의실과 인터뷰 참가자가 근무하는 학교 상담실 등의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에 앞서 연구진은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의 허락과 동의서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는 연구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또한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인터뷰 질문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질문지를 인터뷰 전에 보내 검토하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진행자의 질문(도입질문)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품성에 대한 정의와 관련 경력 등에 대하여 개인당 2~3분 정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 부분은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입질문에 이어 진행자는 인터뷰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유의하며, 주요 질문을 통해 인터뷰 참가자들의 생생한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도출된 의견이 인터뷰 참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마무리 질문을 통해 빠진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에 대한 확인과 준비된 질문 외에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질문한 구체적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6. 포커스 그룹 참가자 일반사항

	구분	빈도(명)	유효 백분율(%)
성별	남자	4	21.1
	여자	15	78.9
	소계	19	100.0
연령별	30대	6	31.6
	40대	9	47.4
	50대 이상	4	21.1
	소계	19	100.0
직업별	교사	10	52.6
	상담자	9	47.4
	소계	19	100.0
전공별	교육학	11	57.9
	심리학	1	5.3
	상담학	6	31.6
	사회복지학	1	5.3
	소계	19	100.0
경력별	3년 이상 5년 이하	4	21.1
	6년 이상 10년 이하	4	21.1
	11년 이상 15년 이하	7	36.8
	16년 이상 20년 이하	0	0.0
	21년 이상	4	21.1
	소계	19	100.0
지역별	서울	6	31.6
	경기	10	52.6
	충남	3	15.8
	소계	19	100.0
학력별	학사 졸업	4	21.1
	석사 과정	3	15.8
	석사 졸업	9	47.4
	박사 과정	2	10.5
	박사 졸업	1	5.3
	소계	19	100.0

2) 자료 분석

본 연구자들은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구성요인 및 적용방식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를 기술한 녹취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정독하여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확인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얻어진 정보에 대한 합의와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모여 녹취록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영역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터뷰 축어록을 재검토하면서 주제별로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하고, 선정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결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영역별로 정리한 내용을 모두 모아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내용을 하위범주 별로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분류는 연구자들의 임의적인 추론을 배제하기 위해 인터뷰 참가자들이 직접 한 말을 근거로 삼았다.

3) 인터뷰 결과 요약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는 ‘초등학생의 품성적 특성’, ‘초등학생 품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등학교 학년별 필요한 덕목의 차이’, ‘현장에서의 품성교육 운영실태’, ‘초등학생 품성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으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세부 분석 내용은 [부록 2]에 수록하였으며, 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생의 품성 특성

인터뷰 참가자들은 최근 초등학생들에게서 관찰되는 다양한 품성의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품성의 실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품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터뷰 참가자들은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인관계 영역에서 관계형성과 갈등대처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예의’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과거에는 당연시 되던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하고, 공경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초등학생들이 욕과 같이 올바른지 않은 언어를 자주 사용하며,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예의 영역에서 낮은 품성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배려’의 경우, 봉사정신이 부족하고, 배려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쟁심이 높고, 약자에 대해 소외를 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와 같이 정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자기잘못에 대한 죄책감 부족,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기조절’ 영역에서는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차례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과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 영역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기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으며, 남의 잘못에 엄격한 모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 영역에서는 대체로 자기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감정표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긍정적인 품성적 특성으로 ‘순수함’과 ‘따뜻함’을 꼽았다. 이들은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긍정적인 품성들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나) 초등학생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참가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환경 요인, 개인요인으로 영역이 구분되었다.

우선 가정요인을 살펴보면, 형제·자매의 부재로 인해 가정에서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이 현재 초등학생의 품성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해 개인주의가 내면화 된 것이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밖에 학업위주의 경쟁적인 양육태도와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 가정에서의 낮은 존중경험, 부모의 과잉애정 등도 초등학생의 품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요인으로는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품성교육의 부재와 좋은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사와 프로그램 지도자 등 학교 구성원인 어른들의 품성이 낮은 것도 초등학생 품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최근에 수평적인 교실 분위기와 품성이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수평적인 교실 분위기가 학교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예의가 없는 초등학생 품성의 특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환경 요인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저하가 초등학생 품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발언권이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가 초등학생 품성의 부정적인 면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요인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경우 좋은 품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과 좋은 품성적 행동에 대한 실천동기 부족, 감정에 대한 미분화가 품성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 초등학생 학년별 필요한 덕목의 차이

현장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학년에 따른 필요한 덕목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과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모두 보고되었다. 우선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저학년과 고학년이 보이는 발달상 특성의 차이로 개입해야 하는 덕목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모든 품성 덕목은 학년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일정 수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덕목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즉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학년별로 필요한 품성 덕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적 수준, 발달과정상 적합성의 차이로 인해 학년에 따라 보다 집중해야 할 영역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현장에서의 품성교육 운영실태

인터뷰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이 보고한 현장에서의 품성교육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운영 방식에 대한 영역과 학교 구성원의 품성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 및 지도자의 어려움으로 영역이 구분되었다. 우선, 교육 운영 영역에서 품성교육은 부처에서 하달하는 일괄적 의무교육이 많으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성교육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단회성 교육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전문상담을 활용하거나 수업내용과 연계하여 품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현장에서 품성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문제를 보이는 학생의 교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여 문제가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부 프로그램 요청 시 열악한 교육장소를 배정하거나 아이들의 참여가 어려운 시간을 배정하는 등 학교 담당자의 품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품성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교육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장에서 품성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와 지도자의 어려움으로는 시간이 부족하여 정해진

품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과 품성교육에 배정할 수업시수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품성교육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지도자들보다 교사들에게서 보다 풍부한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교사들은 품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없어 품성교육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교사로서의 엄격함과 품성계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상담자의 역할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품성계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의 부족이 현장에서 품성지도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마) 초등학생 품성계발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운영형태, 프로그램 구성, 집단구성의 세 가지 영역이 도출되었다.

운영형태의 영역에서 캠프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적인 개입방식과 교사, 지도자가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는 교과활동 모듈형,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적인 집단상담의 형태가 품성계발 교육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보고되었다.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는 풍부한 사례제시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학년에 따라 요구되는 품성을 초점화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학급과 가정에서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고되었다. 그밖에 초등학생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토론 중심 활동과 같이 좋은 품성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들은 품성교육의 집단구성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영역임을 보고하였다. 즉 학급단위, 소집단 형태, 학급을 여러 소집단으로 구성하는 등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품성교육 운영 형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집단구성뿐 아니라 집단구성 시 집단원들의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구성원의 품성 수준이 동일한 집단보다 다양한 품성 수준의 집단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4)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현장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초등학생은 다양한 영역에서 품성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현장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초등학생의 품성이 다양한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초등학생의 낮은 품성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습득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한 개인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기간 품성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올바른 품성함양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환경, 개인 모두의 역할과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품성에 대하여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다. 실제로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은 경쟁을 유도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검증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강태중, 강충서, 2013). 더욱이 가정에서도 자녀의 품성교육보다는 자녀의 학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에서 품성교육을 등한시 하는 현상을 학부모조차 문제 삼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쇠신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품성교육에 대한 학교와 부모의 인식 및 역할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초등학교 학년에 따라 요구되는 품성의 덕목에는 차이가 없으나 개입방식에 있어서 학년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하다. 품성의 여러 덕목 가운데 그 가치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도 초등학생에 필요한 품성의 덕목은 학년에 따른 차이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년에 따라 개입방식이나 초점화해야 할 품성 덕목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가 저학년과 고학년의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차이가 극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품성을 초등학생에 적용함에 있어 발달 수준에 따른 개입방안의 차별화와 발달과정에서 적합한 덕목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프로그램을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품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제한된 시간 및 시수로 인해 프로그램의 탄력적인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현장의 여건상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개입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모듈식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교 및 가정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학교 및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품성교육에 대해서 외현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낸 대상에게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품성교육에 대한 참여를 저하시키고, 참여하더라도 참가자의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품성교육은 발달 과정상 초등학교 시기의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교사 및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지침서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 초등학교 품성개발 덕목 유형분류조사 결과 분석

초등학교 품성교육 현장전문가 및 초등학교들이 생각하는 초등학교 대상 품성개발 필요 덕목을 유형화하기 위해 Kane과 Trochim(2007)이 개발한 개념도연구 방법을 진행하였다. 개념도 방법은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들을 산출하여 그들이 그것을 의미 있게 분류함으로써 특정한 현상에 대한 그들의 개념적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손재환 외, 2013, 재인용). 이 방법은 연구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주관적인 경험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방법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다차원척도분석법이나 위계적 군집분석과 같은 양적 분석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질적연구 방법들과 구분된다(Goodyear, Claiborn, Lichtenberg & Wanplod, 2005).

Kane과 Trochim(2007)은 개념도 연구방법을 크게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념도 연구를 위한 준비에서는 초점질문을 도출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적절한 연구 참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둘째, 연구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단계에서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초점질문에 대한 다양한 진술문을 수집한다. 이때 수집한 진술문은 종합, 편집의 과정을 거쳐 100개 이하의 문장으로 축약한다. 셋째, 추출된 아이디어 진술문들을 구조화 하는 단계로 연구 참가자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문장들을 분류하고 평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넷째, 분류된 문장들을 개념도 분석을 통하여 시각화 하는 과정으로 다차원분석법을 통해 2차원 상의 좌표를 얻고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하여 내적으로 일관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개념의 지도를 그린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도를 해석하는 것이 다섯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념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념도 분석은 의미 문장 및 단어를 유형화하는데 있어 질적 조사방법에 의한 피험자의 편파를 최소화하고 특정 심리적 영역 및 귀인들을 분류하는데 객관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손재환 외, 2013, 재인용).

1) 연구 대상

초등학생 품성개발 덕목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품성교육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유형분류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성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품성지도를 해온 전문가들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Kane과 Trochim(2007)의 개념도 연구방법절차를 따라 크게 그림 3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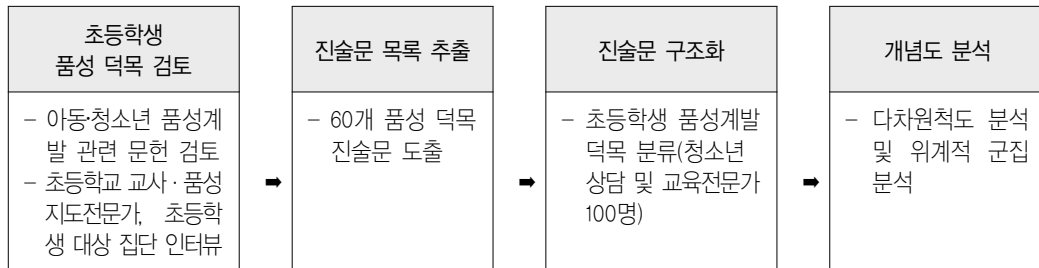


그림 3. 본 연구의 개념도 연구 절차

첫째, 최근 2000년 이후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품성개발과 관련한 국내 학술지 및 학위 논문들에서 품성덕목 관련 문장들을 검토하고 초등학생 품성교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초점 질문은 ‘초등학생 시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품성은 무엇인가?’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4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간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문가는 총 19명으로 크게 초등학교 교사와 품성개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 각 5명씩 2집단, 품성개발 프로그램 전문지도자 5명 1집단, 4명 1집단이였다. 초등학생 집단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4명을 2집단으로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에게는 품성을 ‘바람직한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성품으로써 학교와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학교와 집에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문헌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은 연구진 5인의 5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60개의 문장으로 정리되었다(부록 3). 이후 초등학생 품성개발 덕목을 설명하는 진술 문장들을 통

합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덕목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합의된 내용들은 제거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 문장의 길이가 너무 짧거나 긴 문장, 유사 단어가 중복적으로 사용된 문항들은 연구 참가자의 유형분류 반응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문장의 구체성과 길이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자 하였으며 유사 단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추출된 품성덕목 진술 문항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100명의 초등학생 품성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손재환 등(2013)이 개발한 온라인 유형분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부록 4). 이때 유형 주머니 개수는 2개 이상 12개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분류 후 각 주머니에 이름을 명명하고 각 유형에 포함되는 문장들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설문자료는 다차원척도분석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3) 자료 분석

개념도 분석은 크게 다변량 분석방법인 다차원척도 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 MDS)과 위계적 군집분석을 두 가지 분석법을 사용하여 주관적인 심상자극의 구조와 거리를 산출한다. 다차원척도 분석법은 근접성 자료 즉, 요인들 간의 거리 자료의 구조를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Darcy, Lee, & Tracey, 2004). 요인분석과 달리 다차원척도 분석법은 자료 간의 거리정보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해석 가능한 차원으로 자료의 배열을 설명하여 데이터의 기하학적 구조를 보여준다(Young & Hammer, 1987). 이 기하학적인 표현은 개인의 자료가 유사할수록 더 가까이, 유사하지 않을수록 더 멀게 배치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2×2 행렬의 코딩을 이용하여 2차원으로 표현하였다. 왜냐하면 다차원척도 분석의 목적이 군집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2차원 분석이 일반적으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Jackson, Trochim, 2002). 다른 문항과 유사하다고 분류된 경우 '1', 만약 유사하지 않다고 분류된 경우 '0'으로 코딩되고 이는 역코딩 되어 문항들 간의 유사성 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다차원척도분석의 방법은 주로 사용되는 ALSCAL(Alternating Least Squares Scaling)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은 유클리드 거리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분석은 유형분류를 위한 분석방법으로 개념적으로 유사한 그룹들을 분류하여 위계적인 구조로 표현해주는 분석방법이다. 위계적 군집분석은 요인들 간의 유사성과 비유사성 계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방법의 장점은 분류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정이 결과를 오염시키지 않아 객관적인 유형 분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계적 군집분석 또한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거리기반 자료 해석에 알맞다고 알려진 Ward의 방법을 사용하였다(Kane, & Trochim, 2007).

4) 개념도 분석 결과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 60개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을 이용하여 품성계발 덕목들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stress 값은 .14, RSQ 값은 .90으로 다차원척도분석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선, 2013). 차원 1은 품성 덕목의 지향이 '관계지향적'인지 '자기지향적'인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차원 2는 품성 덕목이 드러나는 영역이 '사회적'인지 '개인적'인지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2차원 상에 표시된 품성덕목 목록들의 좌표 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7개의 군집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각 군집별 품성덕목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주로 관계에 있어서의 '이타성'을 보여주는 덕목이, 군집 2는 '공감배려' 덕목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3은 보다 더 넓은 범주의 이타성, 즉 '공동체의식'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군집 4는 정직 등을 포함한 '용기'에 관한 덕목들로, 군집 5는 '자기이해'를 잘하고 '자기표현'을 잘하는 내용들이었다. 군집 6은 사회적 규범들을 잘 준수하는가에 관한 '규범준수'관련 문장들이었으며 군집 7은 책임, 약속 등을 지키고 인내하는 등의 '자기조절'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5) 개념도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초등학생들이 계발해야 할 품성덕목 목록 60개는 다차원척도분석 결과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품성덕목의 지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품성덕목의 영역이다. 품성교육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품성덕목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품성의 지향과 영역 두 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차원인 '지향'은 계발해야 하는 품성이 자기지향적인지 관계지향적인지를 구분하였다. 자기지향적인 품성덕목들은 '나의 소신과 행동을 표현한다.',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른다.',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수련하는 데에 에너지 투여가 필요한 덕목들이고, 관계지향적인 품성덕목들은 '약한 친구를 도와준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와 같이 타인 즉, 사람에게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 덕목들이다. 품성덕목을 구분하는 차원의

로 품성개발 덕목이 자기지향적인지 관계지향적인지가 하나의 차원으로 추출된 것은 품성 교육전문가들이 품성교육에 있어서 자기가치, 습관, 조절능력의 발달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발달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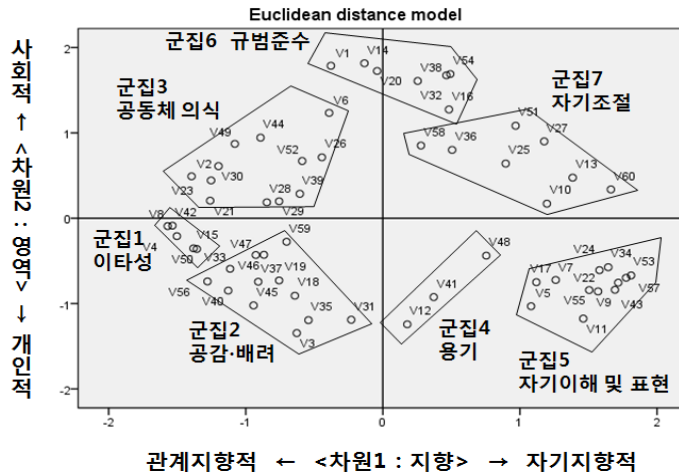


그림 4. 초등학생 품성개발 덕목 개념도

두 번째 차원인 '영역'은 품성개발 덕목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현되는지 또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발현 되는지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인 영역의 품성덕목들은 '친구의 입장을 배려해서 부탁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내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알아챈다.', '내 잘못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한다.'와 같이 품성발현의 영역이 사적이고 자신 스스로 혹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 반면, 사회적인 영역의 품성덕목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내 차례를 기다린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규칙을 잘 지킨다.'와 같이 좀 더 사회적인영역에서 발현되어 집단의 가치에 동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덕목들이 위치한다. 이는 품성교육 전문가들이 초등학생들의 품성덕목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중요한 분류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성개발 덕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유형화하기 위하여 각 품성덕목 목록의 좌표값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7개의 군집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군집별 품성덕목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약한 친구를 도와준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와 같이 친구의 부족한 점이나 약한 점을 도와주는 행동 즉, 이타성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군집 2는 보다 동등한 타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과 배

려를 실천하는 덕목들로 대표적으로 ‘친구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한다.’ 등과 같은 덕목들로 이루어졌다. 군집 3은 유사한 이타성을 다루었지만 ‘다른 사람이 위협에 처했을 때 모른척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와 같이 보다 넓은 공동체 구성원 이타성 즉, 공동체 의식 덕목들을 포함한다. 군집 4는 ‘내 잘못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고한다.’와 같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용기의 덕목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5는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한다.’,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조절한다.’, ‘나는 소신과 생각을 표현한다.’와 같이 자기 내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표현에 관한 덕목을 포함한다. 군집 6은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말한다.’,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른다.’와 같이 보다 사회적인 규범인 예절이나 규칙과 같은 규범준수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군집 7은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 ‘내 차례를 기다린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킨다.’와 같이 군집 6보다 상대적으로 사적인 규칙이나 규범 5에 비해 좀 더 외현적인 자기 규제인 절제, 책임과 같은 자기조절 덕목들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개념도에서 품성계발 덕목들은 두 개의 차원별로 4가지 수준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첫 번째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관계지향적인 수준에는 군집 1(이타성)과 군집 2(공감배려)가 포함된다. 두 번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관계지향적인 수준에는 군집 3(공동체 의식)과 군집 6(규범준수)에서 어른들에 대한 예절을 다룬 덕목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개인적 영역에서의 자기지향적 수준은 군집 4(용기)와 군집 5(자기이해 및 표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기지향적인 수준에는 군집 7(자기조절)과 군집 6(규범준수)의 규칙 따르기와 관련된 덕목들이 포함된다.

표 7. 품성 덕목의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

군집	좌표 표시	좌표값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
		차원1	차원2	
이타성	v4	-0.38	1.79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v8	-1.40	0.49	약한 친구를 도와준다
	v15	-0.63	-1.35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
	v42	-1.50	-0.21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나눠주거나 빌려준다
	v50	1.08	-1.03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준다
공감배려	v3	-0.39	1.23	친구가 인정받는 것을 받아들인다.
	v18	1.26	-0.72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v19	-1.57	-0.09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군집	좌표 표시	좌표값		초등학생 품성개발 덕목
		차원1	차원2	
공동체 의식 (시민의식)	v31	1.69	-0.84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한다
	v33	1.20	0.17	친구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v35	1.46	-1.18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안다
	v37	0.18	-1.24	친구의 입장을 배려해서 부탁한다
	v40	1.38	0.48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v45	-0.13	1.82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v46	-1.38	-0.35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한다
	v47	0.48	1.27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v56	1.12	-0.75	친구가 슬플 때 기운을 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v59	-0.64	-0.91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v2	-0.76	-0.73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른척하지 않는다
	v6	-0.04	1.73	물건을 습득하면 주인을 찾아준다
	v21	-1.26	0.21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베푼다
	v23	1.57	-0.86	주변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v26	-1.25	0.44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v28	1.58	-0.61	다른 사람의 배려에 대해 감사할 줄 안다
	용기	v29	0.90	0.64
v30		-0.44	0.71	내가 모르는 사람도 돕는다
v39		1.18	0.90	다른 사람에 대한 혐담을 하지 않는다
v44		-0.85	0.19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v49		-0.76	0.20	학급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v52		-1.20	0.61	모듬활동을 할 때 잘 협력한다
v12		-0.23	-1.19	내 잘못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한다
v41		0.46	1.67	자기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
v48		-1.11	-0.59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고한다
자기이해 ·표현		v5	1.64	-0.57
	v7	-0.54	-1.19	내가 한 행동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v9	0.51	0.80	화가 났을 때 분노를 조절한다
	v11	-0.91	-0.74	나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알아챈다
	v17	0.25	1.61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하고 해결한다
	v22	-0.61	0.29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안다
	v24	-1.13	-0.85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v34	0.37	-0.92	나의 소신과 생각을 표현한다
	v43	-1.53	-0.09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
	v53	1.72	-0.76	좋지 않은 기분을 잘 떨쳐버린다

군집	좌표 표시	좌표값		초등학생 품성개발 덕목
		차원1	차원2	
규범준수	v55	-0.89	0.94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받아들인다
	v57	-0.94	-1.02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할 줄 안다
	v1	-0.87	-0.43	어른들의 말을 경청한다
	v14	-0.93	-0.43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말한다
	v16	0.75	-0.44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규칙을 잘 지킨다
	v20	-1.08	0.87	인사를 잘 한다
	v32	-1.36	-0.36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른다
	v38	0.97	1.08	공중도덕을 지킨다
	v54	-0.59	0.67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른다
	자기조절	v10	1.81	-0.67
v13		0.49	1.69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
v25		1.51	-0.84	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킨다
v27		-1.28	-0.74	수업시간에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한다
v36		1.77	-0.70	욕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v51		0.28	0.85	내 차례를 기다린다
v58		-0.70	-0.28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v60		1.66	0.34	해야할 일을 한 뒤에 논다

다. 프로그램 구성 단계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야 할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프로그램 참가자의 특성, 프로그램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현장전문가 요구 분석 및 초등학생 품성개발 덕목 유형분류조사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원리를 도출하여 그 구성 원리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을 조직하고 그에 맞는 활동내용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프로그램 초안을 현장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프로그램 구성 원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현장전문가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초등학생 품성 덕목 유형 분류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한 품성개발 프로그램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을 추출하여 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 현장전문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자료와 초등학생 품성덕목 유형분류를 분석한 결과, 요즘 초등학생들은 대인관계 영역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덕목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형제·자매의 부재로 인해 가정에서 다양한 관계에 대한 경험을 할 기회가 줄어들고, 학업위주의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로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타인조망 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사회적 관계에 민감해지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구체화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태도와 행동을 습득하여 계발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품성 덕목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볼 때 자기,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요구되는 품성 덕목은 ‘나’, ‘우리-나와 친구와의 관계’, ‘공동체-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태도’, ‘책임-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약속’ 등 4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결국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인류에 대한 이해와 사랑까지 점차 이들의 이해와 행동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품성 덕목을 계발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최근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관점과 동일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은 긍정심리학의 관점이 문제 해결뿐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됨을 증명하고 있다. 나아가 초등학생들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과 학업성취와 발달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행복 증진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 모형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앞의 구성 원리에 의하여 본 프로그램의 목표 및 하위 목표를 설정하였다.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 따라 이 시기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품성 덕목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하위 목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내용이다.

첫째, ‘나’에 대한 이해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하려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영역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또는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둘째, ‘우리’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은 요즘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가정 해체 또는 외동으로 자라는 성장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다양한 품성들을 이제는 학교나 사회가 책임지고 함양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이타성, 공감, 배려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하위 목표로 설정하였다.

셋째, 최근 품성교육에서는 자신, 타인과의 관계, 나아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즉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체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초인류적인 관점과 태도에도 관심을 갖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느끼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고자 하였다.

넷째, 최근 연구와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가장 부족한 품성은 분노 등과 같은 감정조절과 규범준수였다. 규범이나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규칙이나 질서로,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가 갖춰졌을 때 완성된다. 이는 누구 한 사람의 이득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약속으로 초등학교에서 필히 습득해야 할 주요 덕목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책임’이라고 규정하였다.

3) 프로그램 운영 원리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품성 관련 프로그램은 다수 개발되었으나 대상 설정의 근거가 부재하지

나 체계적이지 못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의 품성적인 덕목이 변화하고 품성교육의 효과가 청소년기의 발달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프로그램 대상의 선정은 명확한 근거에 기반 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문헌자료, 부모와 현장전문가의 요구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회기별 교육시간을 초등학교 수업시간과 동일한 40분으로 편성하여 학교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주 1~2회 운영되며 지도자 1명과 1개 학급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소수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및 청소년상담기관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12회기의 프로그램 중 1회기와 12회기를 제외한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선행연구 분석과 부모, 청소년, 교사, 품성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출된 품성관련 4개 영역(나, 우리, 공동체, 책임)과 9가지 덕목(자기수용, 자기조절, 용기, 이타성, 공감, 배려, 규범 준수, 감정조절,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시 지도자는 참여 대상에 따라 적합한 영역과 덕목을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1회기 프로그램에서 품성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12회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단계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의 자율성의 증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품성이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넷째,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인 지식,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술, 활용도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PPT 등의 시청각 자료와 개인 활동지, 역할극, 토론 등의 활동을 활용하였다.

4) 프로그램 구성단계

가) 프로그램의 목표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수용, 자기조절, 용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품성의 함양을 돕는다.

둘째, 이타성, 공감, 배려에 대한 인지 및 실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긍정적인 품성의 함양을 돕는다.

셋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통해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품성의 함양을 돕는다.

넷째, 규범과 자신의 감정조절에 대한 필요성 및 실천 전략 습득을 통해 책임감 있는 품성의 함양을 돕는다.

나) 프로그램의 초안 구성

표 8.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 내용

회기	영역	덕목	목표	세부 내용
1	공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전체 목표 및 진행 과정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참여 동기 고취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들 간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간 친밀감 촉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품성관련 개인목표 설정 프로그램 대한 규칙 정하기
2	나	자기수용· 강점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성격강점 인식 긍정적인 자기상 확립 좋은 품성에 대한 함양 동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강점 퀴즈를 통한 타인의 성격 강점 맞추기 자신의 성격강점 집단원간 공유
3		자기조절· 긍정적 상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기상태 유지 방법 습득 스트레스 및 불안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기 상태로 전환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을 통해 자기격려 하기 일상속에서 감사함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 찾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 사진 만들기
4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습득 용기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의 의미에 대한 교육 용기가 필요한 순간 공유하기 용기를 낼 수 있는 격려의 말 만들기 용기 목록 만들기
5		이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형을 통해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인식의 차이 알기 동화속 등장하는 인물이 처한 각각의 입장에 대해 토론하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공유하기
6	우리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인지 및 입장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표정 그려보기 자신과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공유하기
7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의 필요성 인식 배려행동 실천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만들기 배려 마인드맵 그리기 배려경험 나누기 배려행동 실천계획 세우기
8	공동체	공동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에서 필요한 인간상에 대해 인지 도움행동에 대한 실천의지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속 기사를 통해 공동체에 도움이 된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 찾기 역할극을 통해 도움행동 실천경험

회기	영역	덕목	목표	세부 내용
9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의 이유 알기 다양한 봉사의 방법 인지 및 봉사의 의미 알기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의지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을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 탐색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 공유 봉사활동 실천 계획 세우기
10		규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준수에 대한 필요성 이해 규칙준수의 공익성 체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에 대한 자신의 의견 공유 활동을 통해 규칙준수의 필요성 및 공익성 경험
11	책임	감정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의 상황과 평온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신체, 감정 변화에 대한 인식 분노조절에 대한 전략 습득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의 상황과 평온한 상황을 떠올리고 두 감정에서 느낀 신체, 감정의 변화 공유 분노상황에서 평온한 상황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략 세우기
12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확인 및 정리 자신의 변한 행동이나 생각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것을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기에 정한 품성관련 개인목표 점검 및 평가 좋은 품성 행동 실천에 대한 다짐

3.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가. 시범운영의 실행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교실과 경기도 경기지역 초등학교 1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4년 10월에 3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관에 주 1회 직접 방문하여 2시간씩 실시하였다. 시범운영은 기관의 여건상 전 회기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12회기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기관별로 재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회기와 12회기는 두 기관 모두 공통으로 실시하였으며, 부산 지역은 ‘공동체’, ‘책임’ 영역인 8~11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는 5, 6회기를 제외한 ‘나’와 ‘우리’ 영역인 2~7회기를 실시하였다.

시범운영의 실시는 연구진 중 초등학생 대상 집단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경력이 있는 4명의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소속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명이었으며, 학력은 석사 3명, 박사 1명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부산지역 18명, 경기지역 25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총 43명이 참여하였다. 시범운영 실시 연구진의 특성은 표 9에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실제 프로그램 시행 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회의를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여 주 1회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연구진은 시범운영 종료 후 책임연구자에게 실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하였다.

연구진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1회기 시작 전과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각각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마지막 회기에는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활용도 평가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주관식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산 및 경기지역 초등학교 각 1곳의 초등학교 5학년 한 반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9. 시범운영 실시 연구진 특성

번호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직업	상담경력	품성 집단상담경력	상담관련 자격증
1	여	44	경기	석사	상담사	17년	13년	청소년상담사
2	여	46	부산	박사	상담사	18년	10년	청소년상담사 상담심리전문가
3	남	32	서울	석사	상담사	6년	3년	청소년상담사
4	여	29	부산	석사	상담사	5년	2년	청소년상담사

나. 시범운영의 평가

1) 연구 설계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설계는 표 10과 같다.

표 10. 효과성 검증 연구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2
통제집단	O3		O4

O1, O3 : 사전검사

O2 : 사후검사

X1 : 실험처치(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실험집단의 경우 부산 지역 시범운영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타성, 감정조절, 학교규칙 준수를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경기 지역 시범운영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자기존중, 공감, 배려행동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부산 및 경기 지역 참가자를 대상으로 모든 변인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표 11과 같다.

표 11. 측정도구

NO.	측정 변인	측정 도구
1	이타성	Raviv(1979)가 개발하고 김택호(2004)가 수정한 척도
2	정서조절	문용린(1997)이 개발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 영역 척도
3	학교규칙 준수	최혜숙(2003)의 학교생활적응 척도 중 학교규칙 영역 척도
4	자기존중	한국교육개발원(2014)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 중 자기존중 영역 척도
5	공감	Davis(1994)가 개발하고 박성희(1997)이 번안한 문항을 김진희 등(2000)이 수정한 척도
6	배려행동	금명자 등(2001)이 개발한 척도

2) 연구 대상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대상은 실험집단 43명, 통제집단 47명이었 다. 실험집단의 경우 부산지역은 4학년부터 6학년을 통합하여 한 학급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교실이 대상이었으며, 경기지역은 양주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이 대상이었다. 참가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부산지역이 18명, 경기지역이 25명이었다. 성별은 남학생 22명, 여학생 21명이었고, 학년별로는 4학년이 6명, 5학년이 30명, 6학년이 7 명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부산지역 및 경기지역 양주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한 학급 이 대상이었다. 지역별 분포는 부산지역 23명, 경기지역 24명, 성별은 남학생 27명, 여학생 20명이었다.

표 12.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실험집단		통제집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지역	부산	18	41.8	23	48.9
	경기	25	58.2	24	51.1
성별	남	22	51.2	27	57.4
	여	21	48.8	20	42.6
학년	4학년	6	14.0	0	0.0
	5학년	30	69.8	47	100.0
	6학년	7	16.3	0	0.0
총 인원		43	100	47	100

3) 측정도구

가) 이타성

이타성을 측정하기 위해 Bal-tal과 Raviv(1979)가 개발한 도움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도움행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하위요인으로는 공감, 나누어주기, 협력하기, 친절, 동정의 6개 영역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김택호(2004)가 Bal-tal과 Raviv(1979)가 개발한 척도를 공감요인, 협력 및 조력 요인, 증여요인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18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본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표 13. 이타성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이타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공감	5	1, 2, 3, 6, 16	.86
협력 및 조력	10	4, 5, 7, 9, 10, 11, 12, 13, 15, 18	
증여	3	8, 14, 17	

나) 정서조절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문용린(1997)이 개발한 청소년용 정서지능 검사의 5가

지 구성내용 가운데 정서조절 영역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서조절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로, 검사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2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6]에 제시하였다.

표 14. 정서조절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정서조절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정서조절	8	1, 2*, 3*, 4*, 5*, 6*, 7*, 8*	.62

* 역채점 문항

다) 학교규칙 준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학교규칙 준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정남(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 적응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능력 검사는 총 32개 문항으로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 영역 8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학교규칙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춰 학교규칙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검사 결과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3으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표 15. 학교규칙 준수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학교규칙 준수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학교규칙 준수	8	1, 2, 3, 4, 5, 6, 7, 8	.63

라) 자기존중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2014)에서 개발한 KEDI 인성검사 중 자기존중 영역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존중 척도는 총 7문항으로, 피검자는 검사지에 기술된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 상에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8]에 제시하였다.

표 16. 자기존중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자기존중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자기존중	7	1, 2, 3, 4, 5, 6, 7	.88

마) 공감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1994)가 제작하고 박성희(1997)가 번안한 대인관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 IRI)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반응지수 척도는 관점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관심, 개인적고통의 4개 하위 요인에 각각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검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공감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 수용과 관련된 '관점취하기'영역과 타인의 부정적 경험을 보았을 때의 불편함이 포함된 '공감적 관심' 영역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9]에 제시하였다.

표 17. 공감능력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공감능력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관점 취하기	7	1, 2*, 3, 4, 5*, 6, 7	.78
공감적 관심	7	8, 9*, 10, 11, 12*, 13*, 14	

* 역채점 문항

바) 배려행동

시범운영 참가자들의 배려행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금명자 등(2001)이 개발한 배려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려행동 척도는 언어적 배려행동, 일반적 배려행동 그리고 구체적 배려행동의 3개의 구성내용과 각각 4개의 하위문항으로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게 한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척도는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표 18. 배려행동 척도,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배려행동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계수
언어적 배려행동	4	2, 5, 7, 8	.88
일반적 배려행동	4	1, 3, 4, 12	
구체적 배려행동	4	6, 9, 10, 11	

사) 참가자 및 지도자 평가

초등학생 품성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활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 활용도는 5점 척도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실시하였다. 또한 질적인 평가를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 작성하게 하였다.

지도자의 경우, 시범운영 운영이 끝난 후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활용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시의성 및 개발목적과의 부합성, 현장 적용성, 유익성, 기여도 등이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지도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제시하여 본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장점, 각 회기에서 도움이 된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간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paired-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이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증되었다. 하나는 '이타성', '감정조절', '학교규칙 준수', '자기존중', '공감', '배려행동' 척도를 프로그램 1회기 시작 전과 모든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를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참가자와 지도자의 현장 활용도 및 질적 평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범운영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함께 설정한 후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가. 품성계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1) 이타성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이타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측정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이타성($t=-2.34$, $p<.05$)과 하위요인 공감($t=-3.42$, $p<.01$), 협력 및 조력($t=-1.25$, $p<.05$), 증여($t=-2.41$, $p<.05$)가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해 참여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가 이타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19.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이타성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M(SD)	사후 M(SD)	t	사전 M(SD)	사후 M(SD)	t	
이타성	61,28(11,44)	68,22(8,14)	-2,34*	60,81(12,38)	59,38(12,50)	0,97	
하 위 요 인	공감	14,39(3,73)	17,89(2,74)	-3,42**	14,04(4,32)	13,81(4,02)	0,42
	협력 및 조력	37,94(6,58)	39,89(5,00)	-1,25*	37,81(7,29)	36,57(8,28)	1,36
	증여	8,94(2,86)	10,44(1,85)	-2,41*	8,96(2,49)	9,00(2,26)	-0,14

* $p < .05$, ** $p < .01$, *** $p < .001$

2)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정서조절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측정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서조절을 프로그램 전과 후 간에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0), 실험집단의 경우 정서조절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해 참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는 다소 증가하여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0.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정서조절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M(SD)	사후 M(SD)	t	사전 M(SD)	사후 M(SD)	t
정서조절	23,72(5,33)	26,22(4,29)	-1,70	22,53(5,88)	21,89(5,47)	0,68

* $p < .05$, ** $p < .01$, *** $p < .001$

3) 학교규칙 준수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학교규칙 준수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측정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학교규칙 준수($t = -2.34, p < .05$)가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해 참여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규칙 준수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학교규칙 준수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M(SD)	사후 M(SD)	t	사전 M(SD)	사후 M(SD)	t
학교규칙 준수	26,89(3,86)	29,56(4,45)	-2,34*	27,49(6,11)	28,17(6,41)	-1,18

* $p < .05$, ** $p < .01$, *** $p < .001$

4) 자기존중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자기존중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측정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자기존중($t = -2.43$, $p < .05$)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해 참여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가 자기존중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자기존중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M(SD)	사후 M(SD)	t	사전 M(SD)	사후 M(SD)	t
자기존중	28,92(5,09)	30,84(4,12)	-2,43*	31,13(3,79)	30,74(4,07)	1,98

* $p < .05$, ** $p < .01$, *** $p < .001$

5) 공감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공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측정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감에 있어서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23), 실험집단의 경우 공감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해 참여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 점수는 다소 증가하여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공감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3.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공감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M(SD)	사후 M(SD)	t	사전 M(SD)	사후 M(SD)	t	
공감	46.12(8.55)	46.92(5.81)	-0.45	44.36(8.72)	43.40(9.10)	1.41	
하 위 요 인	관점 취하기	24.00(4.61)	24.12(3.82)	-0.13	22.91(5.17)	22.30(4.93)	1.57
	공감적 관심	22.12(4.82)	22.80(2.86)	-0.65	21.45(4.34)	21.11(4.67)	0.75

* $p < .05$, ** $p < .01$, *** $p < .001$

6) 배려행동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라 초등학생이 인식한 배려행동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측정된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배려행동($t = -2.15$, $p < .05$)과 하위요인 중 언어적 배려행동($t = -2.29$, $p < .05$), 구체적 배려행동($t = -2.35$, $p < .05$)이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해 참여 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여가 배려행동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4.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배려행동 사전, 사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사전 M(SD)	사후 M(SD)	t	사전 M(SD)	사후 M(SD)	t	
배려행동	39.48(7.24)	43.76(9.87)	-2.15*	44.85(8.33)	44.68(7.98)	0.16	
하 위 요 인	언어적 배려행동	12.64(3.43)	14.28(4.13)	-2.29*	15.09(3.22)	15.21(3.08)	-0.33
	일반적 배려행동	13.60(2.68)	14.68(3.56)	-1.31	15.13(2.99)	15.00(2.90)	0.34
	구체적 배려행동	13.24(2.91)	14.80(3.37)	-2.35*	14.64(3.40)	14.47(3.48)	0.33

* $p < .05$, ** $p < .01$, *** $p < .001$

나. 결과 요약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과 경기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운영된 프로그램 회기에서 다른 품성 덕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척도를 선정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부산지역 18명, 경기지역 25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다. 척도는 부산지역 시범운영 집단을 대상으로 이타성 척도, 감정조절 척도, 학교규칙 준수 척도를 활용하였다. 경기지역 시범운영 집단은 자기존중 척도, 공감척도, 배려행동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부산 및 경기 지역 5학년 한 학급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변인을 측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부산지역 23명, 경기지역 24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가자의 이타성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과 이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프로그램 참여 이전보다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이타성이 향상되었다. 하위요인별 변화를 살펴보면 공감, 협력 및 조력, 증여 요인 모두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즉, 본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타성을 더 높게 지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참여 전후 학교규칙 준수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참여 이전과 이후의 학교규칙 준수의 평균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 이후 학교규칙을 더 준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에 따른 자기존중의 변화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배려행동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가자들은 배려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정서조절과 공감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의 감정조절 영역이 인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즉, 과제수행에 있어 참가자의 인지적 수준의 차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감의 경우 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되어 공감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내면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 참가자 및 지도자 평가

가. 참가자 평가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평가한 프로그램의 현장활용성에 대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59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유익성과 보급 필요성이 평균 4.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4.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낮게 보고된 것은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즉 프로그램 수행시 학년에 따라 체감하는 난이도에 있어 개인차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현장 활용성 평가(참가자)

번호	질문	만족도
1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가요?	4.45
2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나요?	4.55
3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졌나요?	4.64
4	프로그램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4.66
5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원하시나요?	4.66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품성계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0회기 ‘깜깜한 교차로’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는 의견과, ‘직접체험을 통해 규칙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으로 의견이 많았던 2회기 ‘나와 너의 별 찾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강점 발견을 통해 장래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 7회기의 ‘배려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활동이 ‘배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배려행동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12회기의 ‘멋진 나 완성하기’에서는 ‘학급원 끼리 프로그램을 통해 품성 관련 변화된 모습에 대한 격려를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 배려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의견이 있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기 어려웠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2회기의 ‘나와 너의 별 찾기’에서 ‘자신의 강점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의견과 10회기의 ‘깜깜한 교차로’에서는 활동에서는 ‘서로 단합해야 하는 부분이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 후에 깨닫게 된 점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의 강점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규칙이 없으면 불편하겠다.’, ‘협동을 잘해야겠다.’, ‘내가 몰랐던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에는 ‘이러한 교육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품성과 관련된 재미있는 동영상을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나. 지도자 평가

지도자 대상 프로그램의 현장 활용성 평가는 표 26과 같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개발의 시의성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유의성과 기여도는 4.75점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의 개발목적과 실용성은 4.50점이었다.

표 26. 초등학교 품성계발 프로그램 현장 활용성 평가(지도자)

번호	질문	만족도
1	본 프로그램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00
2	본 프로그램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50
3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0
4	본 프로그램을 부모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75
5	본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75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프로그램의 용어에 있어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모둠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집중도가 낮아져 ‘보조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인별 작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몰입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으로 ‘모듈식 구성과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배정으로 현장성을 높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보고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 좀 더 활동적인 부분을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프로그램 시작 전,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 회기당 프로그램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회기별로 중심활동을 최소화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장점과 보완사항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정리한 것은 표 27에 제시하였다.

표 27. 초등학교 품성계발 프로그램 회기별 장점 및 보완 사항

회기	회기명	장점	수정·보완할 점
1	우리는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스티커로 흥미를 유발하면서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시 용어를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는 용어로 수정 필요 ‘나의 미션 카드’ 진행시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함.
2	나와 너의 별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강점 나무 만들기’에 대한 호응과 반응이 가장 좋았음. 상호작용을 통한 강점 찾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점에 대한 확신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나라 이야기’는 자체 제작하여 웹교재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자신의 장점을 기입할 때 능력과 관련된 장점(달리기 빠르다. 악기연주 잘한다)등의 내용을 기입하는 경향이 있음 지도자가 확실하게 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을 기입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강조가 필요함. 각 성격적 장점을 강점용어로 바꾸는 작업시 24가지 성격강점내용을 제시해주어야 용어정리가 용이함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포함됨)
3	행복한 순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이 주변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다양한 장면 컷으로 수정필요 자기이해 및 표현 영역보다는 자기조절에 추가하여 포함
4	내 안에 용기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 있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집중도와 흥미도가 높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 자료의 내용이 위험에 뛰어들어 도움을 주는 영웅중심의 영상으로 충분한 토의 필요
5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되는 도형을 한가지로 통일하는 것이 같은 자극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더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화 은혜 값은 까치의 입장별 토론은 까치와 선비의 입장이 아니라 구렁이와 선비의 입장에서 토론하는 것이 목표와 더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6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의 경우 공감에 대한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 공감의 영역이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의 연장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쉬움. 5회기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됨 타인의 마음을 공감한 뒤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회기	회기명	강점	수정·보완할 점
7	또 다른 내가 되어 보는 역지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에 대한 입장이 되어보는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조망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배려〉동영상이 외국의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라 감정몰입이 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임. 오히려 비슷한 또래의 국내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상영하고, 우리 학교나 학급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면 흐름이 더욱 자연스럽고 심도있는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8	우리는 리틀 히어로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자들로 하여금 영화에서 본 영웅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어로 노트 만들기’ 진행시 그동안 자기가 했던 도움 행동과 앞으로 실천 가능하거나 해보고 싶은 도움 행동을 나누어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함. 과제를 내줄 때도 동일한 도움 행동보다 다양한 도움 행동 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보고 이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9	더불어 살면 더 불어나는 행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가 없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사례를 동영상 등으로 감동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도 초등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이나 봉사활동을 일깨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나눔의 실천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울지마 톤즈, 6단계의 법칙’에서 동영상의 핵심내용이외에 장황한 부분이 있어 편집하여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봉사,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에서 봉사활동의 유형을 유목화해서 각각의 예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음 ‘나눔의 삶 버킷리스트’는 내용은 좋지만 아이들이 큰 보람이나 성취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발표할 때 30년 뒤를 가정하여 ‘나눔의 삶 시상식’형식으로 진행하면 아이들이 더욱 흥미를 보일 것 같음
10	Rule Defe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정한 규칙을 게임을 통해 경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조 지도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11	내 감정의 두 얼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이 발생할 때의 신체변화, 생각의 변화를 생각해보도록 하여 자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짐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신체와 인지를 각각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는 것이 실제 감정조절에 적용하기에 유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시트의 화의 단계를 3)2)1)단계로 줄여갈 때 각각 신체반응/생각감정 조절하기를 나누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음. 분노게이지를 줄이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내도록 하고 그것이 각각 신체반응을 조절하는 것인지 생각감정을 조절하게 하는 것인지를 구별해보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분노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 수월함. 따라서 화가 나는 상황들을 떠올려보도록 하고 유사한 상황을 떠올린 친구들끼리 조를 이루어 분노감소 전략을 생각해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 됨.

회기	회기명	강점	수정·보완할 점
12	새로운 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기와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달 할 수 있어 참여도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데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기에서 목표한 내용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2~11회기 사이에 1회기 목표에 대한 강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음. 친구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우를 대비한 지도자 지침안내가 필요함

다. 전문가 감수

1)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감수 의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 상담 및 집단 상담 경력이 많은 전문가 2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전문가는 상담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수년간 초등학교 품성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한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 상담 및 집단상담 경력과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감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수자들은 품성을 계발해야하는 필요성이나 내용을 인지적으로만 알고 넘어가거나 학습 등의 다양한 명시적 교육과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은 덕목이 필요한 이유와 그 덕목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경험하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덕목들이 청소년들의 실제 생활 속 문제 장면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배운 것을 적용하고 계발해나가도록 도와 스스로 문제해결과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품성프로그램을 생활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나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생활 교육프로그램, 서클활동을 적용한 프로그램 및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 나 → 우리 → 공동체 → 책임 영역 중 자기조절과 용기를 '책임'이라는 영역으로 묶는 것이 전체 맥락에서 자연스럽지 않으며, '나' 영역에서 자기조절·긍정적 상태유지 덕목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책임의 영역 내 감정조절과 묶을 것 제안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비 실험과 피드백

등의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개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2) 프로그램 회기별 감수 의견

프로그램 전반과 더불어 각 회기 별로 감수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8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정하기 부분에서 품성과 관련된 개인목표 설정을 나, 우리, 공동체, 책임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2회기에서는 덕목 명을 자기수용·강점 찾기로 하기보다 ‘자기이해, 자기표현’이라고 수정하고, 강점 찾기는 목표나 세부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점 인식의 방법을 관련 검사, 타인 피드백, 자신의 일화나 경험 탐색 등 다차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3회기에서 자기조절·긍정적 상태 유지는 최근 초등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충동성과 관련하여 11회기 책임영역의 감정조절과 연결지어 강화하고, 분명한 개념 정의와 그것에 일치하는 목표와 세부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4회기는 용기라는 덕목 구성과 내용이 신선하다고 좋다는 의견과 함께 ‘용기관련 마인드 맵 그려보기’,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상황 탐색하기’, ‘용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록 만들기’, ‘용기는 ()다.’라는 자기만의 정의 만들기 등의 활동을 활용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5회기의 이타성이나 목표와 세부 내용은 관점 조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감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타성의 사전적 의미인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함’을 초등학생에서 가르치고 함양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일치성, 공통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기라는 원과 타인이라는 원이 따로 떨어져 서로 다른 면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과 타인의 공통성을 많이 찾아가면서 두개의 원이 서로 점점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하는 시각적 그림을 활용하면서 이타성 발휘 동기를 더 높여가는 게임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7회기는 배려경험 나누기는 다양한 배려행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려 받은 경험과 소감, 배려해 본 경험과 소감, 배려행동을 관찰하거나 들은 경험과 소감 등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배려행동 실천계획의 구체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처할 구체적 상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 배려행동 목록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서 선택(혹은 이를 참고해서 계획)하고 그 이유를 적고 실천 가

능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활동지를 구상해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8회기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따돌림 혹은 학교폭력 관련 장면 등)해 공동체 의식 여부에 따른 학급 관련자들의 반응과 대처 및 결과들의 차이를 자각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활동개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0회기는 규칙이나 규범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와 이익을 위해서 함께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보고 이를 지키거나 어길 경우, 그에 대한 대처 행동을 함께 찾아가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규범의 필요성, 규범 준수에 대한 자각, 경험, 결단하게 하는 활동, 개입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11회기는 3회기의 자기조절과 감정조절을 구분하여 쓰기보다는 통일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연결하여 2회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표 28. 프로그램 회기별 전문가 감수 의견

회기	영역	덕목	감수 내용
1	공통	-	•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정하기 → 참여규칙정하기, 품성관련 개인 목표 설정이나, 우리, 공동체, 책임의 영역에서 세분화되어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2	나	자기수용·강점 찾기	• 덕목을 '자기이해, 자기표현'이라고 수정하는 것 • 강점 찾기는 목표나 세부내용에 들어가도록 • 자신의 성격 강점을 인식하는 방법을 관련검사, 타인피드백, 자신의 일화나 경험탐색 등 다차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자기조절·긍정적 상태유지	• 자기조절의 개념이 분명히 정의되고, 이에 일치되는 목표와 세부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 나 영역은 2,4회기로 축소하고, 11회기 앞에 자기조절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초등학생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조절문제이기 때문에 2회기로 강조함이 필요
4		용기	• 신선하고 좋음 • 용기관련 '용기관련 마인드 맵 그려보기', '나에게 용기가 필요한 상황탐색하기', '용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행동목록 만들기', '용기는 ()다' 라는 자기만의 정의 만들기 등의 활동을 활용
5	우리	이타성	• 덕목은 이타성인데, 목표와 세부내용은 관점조망으로 보임. 공감이라는 덕목으로 표현하면 관점 조망의 내용을 그대로 넣어도 될 것으로 보임 • 이타성의 사전적의미가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함'인데 이 부분을 특정하여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고 함양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 • 이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일치성, 공통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자기라는 원과 타인이라는 원이 따로 떨어져 서로 다른 면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과 타인의 공통성을 많이 찾아가면서 두 개의 원이 서로 점점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하는 시각적 그림을 활용하며 이타성 발휘할 동기를 더 높이는 개입도 좋을 듯함
6		공감	• 좋습니다.
7		배려	• 배려 경험 나누기는 다양한 내용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받은 경험과 소감, 배려해 본 경험과 소감, 배려행동을 관찰하거나 들은 경험과 소감 등에서 나누도록 해도 좋을 듯함

회기	영역	덕목	감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행동실천계획의 구체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처할 구체적 상황과 이에 따른 구체적 배려행동 목록을 만들어 주고 그것에서 선택(혹은 이를 참고해서 계획)하고 그 이유를 적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도록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함.
8	공동체	공동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으로 따돌림 혹은 학교폭력 관련 장면 등에서 공동체 의식 여부에 따른 학급 관련자들의 반응과 대처 및 결과들의 차이를 자각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활동 개입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9		공동체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습니다.
10	책임	규범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이나 규범이 위에서 결정되어 주어지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조화와 이익을 위해서함께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보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어길 경우 대처 등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며 규범의 필요성과 준수책임을 자각, 경험, 결단하게 하는 활동과 개입이 포함되면 좋겠음
11		감정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조절과 자기조절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궁금함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음 자기조절은 한회기로는 다소 부족할 것 같으며, 3회기를 10회기로 옮기면 좋을 것 같음
12	공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습니다.

3. 프로그램 수정 및 보완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고, 현장전문가의 평가, 학계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검토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수립하였다. 프로그램 매뉴얼과 웹교재는 아래 방향에 맞게 세부적인 수정을 마무리하여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방향은 아래 표 29와 같다.

표 29. 초등학생 품성계발 프로그램 수정 내용

영역	회기 명	덕목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성영역을 ‘나-우리-공동체’로 변경 회기 내 세부 프로그램 모듈식 구성 지도자 팁과 멘트 예시 상세 기술 초등학생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 제시
공동	1	우리는 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중 개인 목표를 덕목별로 설정
나	2	나와 너의 별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적 강점과 능력강점의 차이 설명 추가 성격적 강점 용어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제공 타인이 지각한 자신의 장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포함

영역	회기 명	덕목	세부 내용	
	3	행복한 순간 만들기	자기조절· 긍정적 상태유지	- 감정유발 이미지를 초등학교에 맞는 감정유발 장면 컷으로 수정
	4	내 안에 용기있다	용기	- 동영상 시청 후 토의 내용에 대한 지도자 팁 추가 - 모듈별 활동지 작성 시 토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우리	5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타성	- 시각자료를 일원화하여 활동의 효과성 제고 - 갈등사례에서 입장을 대변할 대상 변경
	6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	공감	- 타인 공감 이후 공감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변경 - 상황별 공감 및 수용의 언어적·행동적 표현방법 포함
	7	또 다른 내가 되어 보는 역지사지!	배려	- 동영상 자료를 국내 초등학교 사례를 담은 동영상으로 변경 - 각자의 학교나 학급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내용 토론 추가
공동체	8	우리는 리틀 히어로즈	공동체 의식	- 초등학교나 학급에서 실제로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관련한 사례 제시 - 공동체 의식의 유무에 따른 결과의 차이인식을 유발하는 활동 포함
	9	더불어 살면 더 불어나는 행복	공동체 의식	- 봉사활동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청각자료 추가 - 봉사에 대한 동기 및 보람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가상극요소 추가
책임	10	Rule Defender	규범준수	- ‘공동체’ 영역에 포함하여 개인적인 책임보다 포괄적인 공동체 의식에 초점 - 참가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결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깜깜한 교차로’ 운영 방법 수정 - ‘깜깜한 교차로’ 지도자 안전지침 추가
	11	내 감정의 두 얼굴	감정조절	- ‘나’ 영역으로 이동 - ‘감정의 두 얼굴’ 감정조절 단계를 단순화 - 감정이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 설정
공통	12	새로운 출발	-	-

우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련하여서는 전체 영역을 ‘나-우리-공동체-책임’의 구분의 순서가 일반적인 이해가 어렵고 ‘책임’ 영역이 나머지 영역들과는 분류 차원이 상이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나-우리-공동체’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책임’ 영역의 ‘규범준수’ 덕목은 ‘공동체’ 영역으로, ‘감정조절’ 덕목은 ‘나’ 영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범운영자들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한 회기에 순차적으로 모두 진행하는 것이 시간상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회기 내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모듈식으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지도자가 대상과 상황에 맞게 모듈을 선택하여 시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이해 수준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풍부한 멘트, 팁, 사례 등을 프로

그럼 매뉴얼과 웹교재에 탑재하기로 하였다.

각 프로그램 회기별로는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모듈을 재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1회기는 각자 프로그램 중에 실천할 품성관련 개인 목표 설정을 나, 우리, 공동체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도록 하였다.

2회기는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찾기 위한 활동에서 참가자들이 성격적 장점과 능력 강점을 혼돈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성격적 강점과 능력 강점의 차이에 관한 설명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일부 어려운 성격적 강점 용어들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또한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가 성격적 강점을 생각해보는 것만 아니라 타인이 지각한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이 긍정적이 자기상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타인의 강점을 나누는 활동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3회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더욱 초등학생에게 맞는 이미지 컷으로 수정하고 그 종류를 늘리는 것이 활동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변경하도록 하였다.

4회기는 기존의 11회기가 삽입되어 다음 회기들이 한 회기씩 뒤로 배치가 되었다. 이는 감정조절이 자기조절과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 회기 내용 면에서는 감정조절 단계를 단순화하여 참가자들이 단계라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감정조절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신체반응-감정생각을 조절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활동을 수정하고자 한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모호함을 줄이기 위하여 감정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정조절 전략을 토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5회기는 동영상의 내용이 주로 성인들이 위협에 뛰어들어 누군가를 구조하는 동영상을 다루었기 때문에 무모한 도움행동의 위험성과 올바른 용기행동에 대한 토론을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모듈별 용기목록 작성 시에도 충분히 모듈원들이 토론하여 구체적인 용기목록을 추출할 수 있도록 토론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6회기는 같은 자극을 보고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인식할 수 있다는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원에게 한 가지의 통일된 자극을 제시하도록 한다. 예화 ‘은혜 값은 까치’를 보고 등장인물들의 각 입장이 되어 토론하는 활동에는 좀 더 갈등이 첨예한 두 등장인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7회기는 타인 공감, 차이 인식 및 수용의 내용이 앞 회기와 중복되어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공감과 수용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보도록 독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등학교들이 교내의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공감의 언어적·행동적 표현 방식들을 실습하는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8회기는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제한되는 동영상에 해외 인종차별을 다룬 영상보다는 참가자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상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 초등학교 사례를 담은 동영상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각자의 학교나 학급에서 역지사지를 적용해 변화시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토론활동을 추가하고자 한다.

9회기는 초등학교의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의식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급이나 학교 단위에서 필요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학급 및 학교에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에 대한 토론과 역할극을 진행하도록 수정하고자 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동체 의식의 유무에 따른 결과에 대한 토론을 추가하고자 한다.

10회기는 봉사활동의 다양한 예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각 봉사활동 유형별 시청각자료를 추가할 예정이다. ‘나눔의 삶 버킷리스트’ 활동에서는 참가자들의 봉사 동기를 제고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체험해보도록 하기 위해 가상 ‘나눔의 삶 시상식’ 활동을 추가할 것이다.

11회기는 보다 개인적인 책임보다는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논조를 재구성하고,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은 구성원 스스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합의에 의하여 정해졌기 때문에 더욱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깜깜한 교차로’ 게임 운영 규칙을 모둠원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킬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한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 지침에 안전지침을 추가할 것이다.

위 내용들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 ‘초등학교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표 30과 같다.

표 30. 최종 프로그램 목표 및 세부 내용

영역	회기 명		덕목	목표	세부 내용
공통	1	우리는 친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전체 목표 및 진행 과정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참여 동기 고취 프로그램 참여 구성원들 간 친밀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원 간 친밀감 촉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품성덕목별 개인목표 설정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 정하기
나	2	나와 너의 별 찾기	자기수용강점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성격강점 인식 긍정적인 자기상 확립 좋은 품성에 함양 동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격강점 퀴즈를 통한 자신 및 타인의 성격 강점 알기 자신의 성격강점 집단원간 공유

영역	회기 명	덕목	목표	세부 내용	
	3	행복한 순간 만들기	자기조절 (긍정적 상태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기상태 유지 방법 습득 스트레스 및 불안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기 상태로 전환 및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임을 통해 자기격려 하기 일상 속에서 감사함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 찾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마음 사진 만들기
	4	내 감정의 두 얼굴	자기조절 (감정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의 상황과 평온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신체, 감정 변화에 대한 인식 분노조절에 대한 전략습득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노의 상황과 평온한 상황을 떠올리고 두 감정에서 느낀 신체 감정의 변화 공유 구체적인 분노상황을 제시하고 분노 상황에서 평온한 상황으로 옮겨가기 위한 전략 세우기
	5	내 안에 용기있다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습득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의 의미에 대한 교육 용기가 필요한 순간 공유 및 토론 용기를 낼 수 있는 격려의 말 만들기 용기 목록 만들기
우리	6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	이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도형자극에 대한 연상활동을 통한 개인별 자극인식의 차이 알기 동화속 등장하는 인물이 처한 각각의 입장이 되어 토론하기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공유하기
	7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감정에 대한 인지 및 입장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 타인에 대한 공감표현 및 수용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표정 그려보기 자신과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공유하기 친구와의 공감 대화 연습하기
	8	또 다른 내가 되어 보는 역지사지!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의 필요성 인식 배려행동 실천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려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 만들기 배려경험 나누기 학급 및 학교에서의 배려 마인드맵 그리기
공동체	9	우리는 리틀 히어로즈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에서 필요한 인간상에 대해 인지 도움행동에 대한 실천의지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 속 기사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토론하기 역할극을 통해 학급 및 학교에서 도움행동의 실천 경험
	10	더불어 살면 더 불어나는 행복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이유 알기 다양한 봉사의 방법 인지 및 봉사의 의미 알기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의지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을 통해 봉사의 의미 탐색 봉사활동 경험 공유 및 봉사유형 동영상 시청 나눔의 삶 버킷리스트 작성 및 나눔의 삶 시상식
	11	Rule Defender	규범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준수에 대한 필요성 이해 규칙준수의 공익성 체득 자율적인 규칙수립 및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에 대한 자신의 의견 공유 활동을 통해 규칙준수의 필요성 및 공익성 경험
공통	12	새로운 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 확인 및 정리 자신의 변한 행동이나 생각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것을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기에 정한 품성관련 개인목표 점검 및 평가 좋은 품성 행동 실천에 대한 다짐

V. 요약 및 논의

1. 연구 요약

최근 청소년 문제가 다양화, 흉폭화, 저연령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 또는 품성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핵가족 중심의 가정, 부모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인성을 함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초등학생들조차 학업에 대한 부담,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품성관련 연구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품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구조화 없이 다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실시되어 왔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시간 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품성을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대상을 세분화하여 개발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은 기획, 구성, 실행 및 평가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성 및 품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품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성 및 품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특히 기존에 개발된 국내·외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최근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경향과 프로그램 개발 시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을 위하여 품성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품성관련 덕목에 대한 유형 분류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을 추출하였다.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실시한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을 추출하여 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이 시기에 요구되는 품성 덕목은 '나', '우리', '공동체 의식', '책임' 등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품성 덕목을 계발시키고자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도출된 구성원리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이해하기', '우리-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공동체 의식-내가 모르는 사람과도 더불어 살기', '책임-사회적 규범 지키기' 등 네 가지 하위목표를 수립하고, 하위목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또한 1회기 40~50분, 총 12회기로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중규모 집단 프로그램으로 초안을 구상하였다.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부산, 경기도 등 2개 지역에서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을 실험집단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자기존중감, 공감, 이타성, 배려행동, 감정조절, 학교규칙 준수 등의 척도를 통해 효과성을 측정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한 평가와 품성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한 초등학교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이타성과 자기존중감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규칙 준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정서조절과 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배려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보였는데, 하위요인 중 언어적 배려행동과 구체적 배려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일반적 배려행동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 밖에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현장 활용도를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참여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프로그램 별 품성 덕목에 대한 목표를 잘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피력한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시범운영을 실시한 지도자들이 평가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질적 평가 결과, 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품성 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모듈식 구성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시간 배정으로 현장성을 높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초등학생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보다 활동적인 것을 가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 회기당 프로그램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많아 정해진 시간 내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각 회기별로 중심활동을 최소화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언

본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품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인을 정리하고, 품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전문가의 인터뷰와 다차원적 군집 분석의 연구 방법을 통해 유목화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현 시대의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품성 덕목에 대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현상들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었다. 특히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자기 지향과 관계지향,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의 2차원적으로 품성계발 유형 개념도를 구분하여 분석한 내용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해왔던 결과들과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2013년 품성교육의 7대 핵심 덕목으로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와 관련된 정직, 책임,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존중, 배려, 공감, ‘사회·국가와의 관계’를 위한 소통, 협동으로 정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나’, ‘우리’, ‘공동체’ 영역과 유사한 틀을 보여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리코나와 데이비슨(Lickona & Davidson, 2005)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품성을 “수행적 품성(performance character)”과 “도덕적 품성(moral character)”으로 구분하였는데, 도덕적 품성은 “관계지향적(relational

orientation)”)으로,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과 같이 성공적인 개인 상호 간 관계형성 및 윤리적 행위에 필요한 자질로 구성된다. 반면, 수행적 품성은 “과업완수 지향적(mastery orientation)”)으로, 노력, 근면, 인내력, 강력한 근로윤리, 긍정적 태도, 창의성, 그리고 자기 규율과 같은 자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행적 인성은 유혹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일련의 품성들로 보았다. 이와 같은 분류는 본 연구의 관계 지향과 자기 지향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서두에 품성의 이론과 요인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들의 이론을 토대로 개인적 품성과 관계적 품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다는 연구 과제를 잘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품성계발 덕목들이 자기지향과 관계지향,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두 개의 차원별로 4가지 수준으로 보다 입체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즉 첫 번째,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관계지향적인 수준에는 이타성과 공감·배려가 포함되며, 두 번째,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관계지향적인 수준에는 공동체 의식과 규범준수에서 어른들에 대한 예절을 다룬 덕목들이 포함된다. 세 번째, 개인적 영역에서의 자기지향적 수준은 용기, 자기이해 및 표현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의 자기지향적인 수준에는 자기조절과 규범준수 중 규칙 따르기 관련 덕목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구성 요인에 있어서 경험적 타당도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현장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뿐 아니라 품성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품성관련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초등학교 4-6학년이 함양해야 할 품성 덕목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학급 단위의 중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을 고려한 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프로그램 목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회기별 프로그램을 모듈식으로 구성하여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실시 및 평가가 본원 연구과제 일정에 맞추어 짧은 시간 내에 두 집단에서 각각 두 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바가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적용과 집단원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이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

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7개 품성 덕목이 추출되어 이를 토대로 12회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을 실시해본 결과, 40~5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나의 덕목을 다루는 것은 많은 제한이 따랐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덕목별로 4~5회기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여 대상자들이 각각의 덕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집.
- 강태중, 강충서 (2013). 사교육 담론에 담긴 학교 교육의 의미 역사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3(4), 1-28.
- 교육과학기술부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해설-공통교육과정 『도덕』.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1).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 교육부 (2013).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부 (2013). *배려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성교육 강화 기본 계획*.
- 교육부 (2014).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 발표.
- 국립국어원 (2014. 3).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검색.
- 권은영, 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4.
- 금명자, 김진희, 이소영 (2001). *품성계발 프로그램 「멋진 우리」 현장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장미경, 김은영, 김수리, 안희정 (2002). *초등학생 품성계발프로그램 운영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민선 (2013). *Highly educated married korean women's career persistence motivat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래 (2000).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진희, 양미진, 김은영 (2000).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택호 (2004). *희망과 삶의 의미가 청소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호권 (1977). *도덕성 발달과 교육*. 서울: 배영사.
- 남궁달화 (1999).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남궁달화 (2002). *인성 교육론*. 서울 : 문음사.
- 문용린 (1997). *정서지능(EQ) 진단검사*. 서울: 대교교육연구소.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일반 :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박성희 (1997).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서울: 문음사
- 박영태 (2002). 창의적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방교육경영*, 7, 235-264.
- 박효정, 정광희, 유균상 (2000).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밝은 청소년 (2013). *나나나! 프로그램(초등학생용)*.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인성교육프로그램 자료.
- 배미진 (2014).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초등과학영재의 도덕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2009). *영재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산광역시영재교육진흥원.
- 손재환, 이대형, 이현진, 유춘자, 정진선, 김수현 (2013). 학교폭력 가·피해 상담전략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73, 1-325.
- 안영진 (2010). *유아인성교육*. 서울: 창지사.
- 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통계*.
- 원용희 (2009). *성품계발 : 원교수의 인성교육현장 체험기*. 서울: 효일.
- 유병열 (2006). 초등 바른생활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초등도덕교육*, 22, 5-50.
- 유병열 (2008). *도덕교육론*. 경기: 양서원.
- 윤정남 (2007). *스트레스대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강하 (2009). *초등학교 인성교육 실천 사례(2005-2007)를 중심으로 본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특성: 인성교육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본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특성*.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1996). *학교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96-3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선, 김래선, 조은희, 이현숙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인식연구: 중·고생 이용자의 FGI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43-66.
-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2). 유치원의 기본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2, 71-90.
- 이원희, 홍기철, 김용조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정신건강과 인성발달을 위한 심리교육의 이론정립. *초등교육연구*, 13(1), 103-134.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장영은 (2013). 유아·초등 교육 내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개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 조난심 (2004). 인성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조난심, 차우규 (2000). 학교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한무, 엄혁주 (2014). 초등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참여정도와 품성 및 학교생활 적응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9(4), 125-137.
- 정희태 (2011). 학교폭력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인성교육적 접근. *윤리연구*, 83, 123-162.
- 천세영, 김왕준, 성기옥, 정일화, 김수아, 방인자 (2012).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2-4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www.jikim.net.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013). 아동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최혜숙 (2003). 또래집단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2011-5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상담경향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년 품성계발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허경철, 조난심 (1994). 인간성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모형 개발 및 평가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 임소현, 한미영, 임현정, 손경원 (2014). KEDI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교육개발원.
- 홍석영 (2013). 인성개념 및 인성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등교육연구*, 25, 183-198.
- Akos, P. (2002). Student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 339-345.
- Astin, H. S., & Antonio, A. L. (2004). The impact of college on character development. *The impact of college on character development*, 122, 55-64.
- Bal-tal, D., & Raviv, A. (1979). Consistency of helping behavior measures. *Child development*, 50, 1235-1238.

- Berkowitz, M. W., & Bier, M. C. (2005). *What Works In Character Education*. Washington: CEP.
- Berkowitz, M. W., & Grych, J. H. (2000). Early character development and education.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1*(1), 55-72.
- Blasi, A. (2005). *Moral Character: A Psychological Approach*, in D. Lapsley and C. Power (ed.) 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 Darcy, M., Lee, D., Tracey, T. (2004). Complementary approaches to individual differences using paired comparis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39-150.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y approach*, Madison, WI: Brown & Benchmark.
- Drubach, D. (1999). *The Brain Explained*. NJ: Prentice Hall.
- Dunn, L. (2014, 4, 14). *The ESSENTIAL curriculum*. http://barelybad.com/project_essential.htm에서 검색.
- Elias, M. (2002). Transitioning to middle school. *The Education Digest, 4*, 41-43.
- Flannery, D. J., Liau, A. K., Powell, K. E., Vesterdal, W., Vazsonyi, A. T., Guo, S., Atha, H., & Embry, D. (2003). Initial behavior outcomes for the PeaceBuilders universal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al Psychology, 39*, 292-308.
- Goodyear, R. K, Tracey, R.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5). Ideographic concept mapp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onceptual overview, methodology, and illust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36-242.
- Jackson, K. M., & Trochim, W. (2002). Concept mapping as an alternative approach for the analysis of open-ended survey respons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5*, 307-336.
- Johnson, D. W., & Johnson, R. T. (2001). *Teaching student to be peacemakers: Results of twelve years of researc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California: Sage.
-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4th)*. Thousand Oaks, CA: Sage.
- Lapsley, D. K., & Power, F. C. (2008).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Character Psychology and Character Education*]. (정창우 역). 서울: 인간사랑. (원전은 2005에 출판).

- Lasker, H., Moore, J., & Simpson, E. L. (1980). *Adult Development and Approaches to Learning*. Washington: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 Lee, M. (2003). Korean adolescents "Examination Hell" and their use of free time.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99, 9-22.
- Lickona, T. (1991). 인격교육과 덕교육[*Education for Character*]. (정세구 역). 서울: 배영사.
- Lickona, T., & Davidson, M. (2005). *Smart and good high schools: Integrating excellence and ethics for success in school, work, and beyond*. Washington, D. C.: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 Michele Borba (2001). *Building moral intelligence*. Jossey-Bass.
- Morgan, D. L. (1998).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Paulson, B. L., Truscott, D., & Stuart, J. (1999). Clients' perceptions of helpful experience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17-324.
- Shure, M. B. (2001). I Can Problem Solve (ICPS): An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Program for Children. *Residential Treatment for children & Youth*, 18(3), 3-14.
- Snyder, F. J., Vuchinich, S. A., Acock, A., Washburn, I. J., & Flay, B. R. (2012). Improving elementary school quality through the use of a social-emotional and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a matched-pair, cluster-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 Hawaii. *Journal of School Health*, 82, 11-20.
- Solomon, D., Bttistich, V., Watson, M., Schaps, E., & Lewis, C. (2000). A six-district study of educational change: direct and mediated effects of the child development projec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4(1), 3-51.
- Twemlow, S. W., Fonagy, P., Sacco, F. C., Gies, M. L., Evans, R., & Ewbanks, R. (2001). Creating a peaceful school learning environment: A controlled study of an elementary school intervention to reduce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808-810.
- Young, F. W., & Hammer, R. M. (1987). *Multidimensional scaling: History, theory, and applications*. London : Erlbaum.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부록

1. 품성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2. 품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3. 초등학생 품성개발 유형분류조사 덕목 진술문 목록
 4.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5. 이타성 척도
 6. 정서조절 척도
 7. 학교규칙 준수 척도
 8. 자기존중 척도
 9. 공감 척도
 10. 배려행동 척도
-

[부록 1] 품성교육 현장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도입질문]

1. 품성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질문]

2. 최근 초등학생의 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시기에 발달시켜야 하는 품성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3-1.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기 발달시켜야 할 품성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표현해주세요.
 - 3-2.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각 시기 발달시켜야 할 품성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행동과 말로 표현해주세요.
4. 품성계발을 위해 프로그램 방식의 개입이 적합한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 품성교육이 학교(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6. 품성 관련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효과적인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7. 품성교육을 위한 교사(전문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회기, 시간, 집단 인원, 지도자 수 등)

[마무리 질문]

9. 그 외 품성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록 2] 품성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

1. 초등학생의 품성적 특성

영역	의미범주	요약
대인관계	관계에 대한 어려움 (의사소통 어려움)	-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학교의 관계나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선후배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6)
	갈등대처 어려움	- 트러블이 생기는데 트러블이 생기면 또 역시 그걸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애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6)
예의	어른에 대한 기본예의 부족	-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범절 이런 것들이 몸에 배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9) - 조선시대나 어디 감히 어른 앞에 막 길을 가고 이런 것 없었거든요. 예의라는거 기본이 없어졌어요.(13)
	어른에 대한 공경심 부족	- 자기 담임에 대한 공경심이란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13)
	욕을 많이 함 (올바르지 않은 언어사용)	- 담임선생님한테 벗어나면 언어의 오염이 심각해요(16) - 말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서로 그렇게 해야 세계 보이니까 세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막처럼 쳐지는 방법 중 하나를 욕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12)
	선생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음	- “여기보자” 박수치고 하는데도 자기네끼리 떠들고 하나가 집중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4)
배려	봉사정신 부족	- 그냥 아이들이 아무도 의미 없이 어 뭐가 버려져 있네. 내가 주워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하더라고요. 그냥 나 중심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10) - 아이들이 보상이 있는 봉사를 하려고 해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1)
	배려 부족	- 오늘도 느낀 거지만 애들이 너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아이를 도와주고 같이하기 보다는 우리한테서 배제시켜버리고(14) - 공동체 의식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는 한 팀.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음을 느껴요.(18)
	경쟁심 심화	- 아이들이 필요한 가는 워낙 잘하는데 상대방이 잘한다는 가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18). - 다른 친구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자기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자기는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소소한 다른 친구가 인정받는거조차도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도 있어요. (12) - 굉장히 경쟁적이고 배려하고 나눔이 갈수록 한 해 한 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가 40년째인데 많이 느껴요. 갈수록 아이들이 이기적이다(1)
	약자소외	- 나보다 약한 애들한테는 배려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5) - 배려가 다만 자기랑 친한 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배려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나보다 약한 애들한테는 배려를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5) - 누구에게는 배려를 베풀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대개 소외시키는 양면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구요. (5)

영역	의미범주	요약
정직	정직에 대한 잘못된 인식	-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플러스 “내가 하는 거짓말은 거의 다 하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11)
	죄책감 부족	- 기본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어떤 사례를 들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딱 올라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별로 그런 게 안 올라와요.(11) - 거짓말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부분들인데 안했는데 했다고 한 것이 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많아요.(11)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어떡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게 아니라, 재는 당할 만한 애였고 이런 것들... 자기변명이 빨리 올라오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전반의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11)
자기조절	분노조절의 어려움	- 분노조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분노조절이에요. 분노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분노조절 안 돼요(11) -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안되면 분노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분노를 표출해요(11) - 손해 보는 것을 굉장히 참지 못하고 인내하는 것들 그리고 분노조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5)
	순서를 기다리지 못함	- 우선은 발표를 시켜도 자기가 원하는 다른 친구를, 자기가 손을 들었는데 자기를 안 시키고 다른 친구를 시켰다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정말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12)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함	- 옛날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댈 때 두려움이라던지 그래도 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무슨 영화 속에서 나오는 깡패 영화 보듯이 힘센 아이가 무조건 상대는 그런 경향이 있죠.(16) -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일단 해놓고 봐요(15) -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집에서 하듯이.(6) -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내가 좋으면 끝인 거고 남이 어떻던지는 개의치 않은 점이 있어서 (6) -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 너무 그게 강한 것 같아요.(3) - 본인이 흥미 있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아예 하지 않아요(15) - 관심이 없으면 집중을 잘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들어요.(12)
공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함	-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고요.(15) 남의 배려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거 같고요. (14) - 상대방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으라고 앞의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애한테. 내가 왜 내 안경을 벗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여자 친구가 내가 불편하다고 이거 예요. (15) - 주로 공감하고 그 사이에 그 친구를 이해하고 그런 거에서 부족한 거 같아요.(3)
	자기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부모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존중하지 못 했다던가 선생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다는 버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을 못해요. (13) - 자기감정을 알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2)

영역	의미범주	요약
	남의 잘못에 엄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저지른 건 괜찮고 남이 또 그러면 발끈하고 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 - 저는 아이들이 갈등을 겪는 상황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8) -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용서를 많이 안 해주는 것 같아요(8) - 고자질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굉장히 고자질도 많이 하구요(1) -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굉장히 보지 못하고 담임선생님께 이야기 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한 것에는 굉장히 기준이 관대해서 남에게는 정직한 걸 강요하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자기변명하는...(5) -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고 내가 좋으면 끝인거고 남이 어떤지는 개의치 않은 점이 있어서 (6)
자기표현	솔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의사표현이나 그런 것들 예전 아이들 비해서. 몇 년 전 아이들에 비해서 잘 해요(15) -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표현력이 좋아요(17) - 애들이 참 논리적이라고 해야 하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10) - 요즘 애들은 누구야 일로 와봐 그러면 저멀리서 "왜요?" 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른 이유가 뭔지 내가 들어보고 그게 합당하면 내가 가고 별로면 안 갈 수도 있고..(중략)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10) - 옛날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순종적이었다고 하면 요즘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는.(10) - 아이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자기감정을 100% 다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자기 위주가 되요. 좋은 점은 솔직하다. 자기감정에.(1) - 품성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깊은 내면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뜻함이 있다는 거죠.(2)
	감정표현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들어줬을 때 마음이 어떡니 그러면 전부 다 "슬퍼요"라고만 하잖아요.(13) - 내가 화를 냈을 때 내가 우리 엄마에 대한 미움이라던가. 중고등학생은 증오심에 불타거든요? 이거를 표현을 못해요. 그냥 부정적하다고만 하지 정직하지 못하다고만 묶어버리지 더 이상 표현할지 몰라요.(13) - 저희 반 이번에 정서지능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서지능 1에서 자기감정이 뭔지 자기감정을 표현하거나 이걸 없어요.(2) - 자기감정을 알거나 표현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2)
	순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아직은 순진성은 좀 있다 느껴지긴 해요.(18) - 조금 가다듬어지지 않고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게 어떤 뭐 좀 학교 환경이나 어떤 아이들 가정환경에 따라 표면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굳이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7) - 순수한 면이 다 있거든요. (4)
	따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성을 가르치다보면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2)

2. 초등학생 품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의미범주	요약
가정	형제·자매 부재로 관계 경험 부족	- 형제, 자매가 없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6) -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기대가 많고(2)
	핵가족	- 옛날처럼 대가족이 아니라 소가족이다 보니까 니꺼 내꺼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내 것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아이들이 많아요...이런 개인주의가 많다보니까 나타나는 것 같아요. (3)
	학업위주의 경쟁적인 양육태도	- 모든 걸 선생님들이 엄마가 다 계획 짜놓고 시간표대로 뭔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쉬는 날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촉박하고. <주입만> 이거 다 하고 나면 또 시킬 거거든요(8) - 그런데 억지로 부모들이 학습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품성이 자꾸만 나빠져요.(1) -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엄마의 상황에 따라서 애 상태가 학업 부분에서는 크게 많이 갈리는데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가정교육에 연계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6) - 부모님이 기대가 워낙 크고, 바쁘시니 애정은 많이 못 주시면서 체크는 많이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 뭔가 학교에 와서 누군가 이야기한데 전리품을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칭찬이라던지, 시험점수라던지 뭔가 또래의 인정이라던지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드려야하니까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 -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만 심어줬기 때문에 아이들의 품성이 나빠지지 않았나. (1)
	부모로부터 인성교육을 받지 못함	- 대개 이기적이라 자기만 아는 거죠. 존중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게 또 부모님의 모습이고 선생님의 모습이고 어른의 모습이라.. 그래요.(?) - 내가 엄마가 지금 공부시키는 이유는 너 위해서 너 잘되라고 나만 잘되라고 계속 들으면서 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많이 사는 것 같아요.(10) - 가정에서 그런 감정을 표현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들은 다 바쁘시고 체크만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2)
	가정에서의 낮은 존중경험	- 요즘 아이들이 자기 얘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너무 존중받지 못했어요. (16) - 너네 부모님들도 너를 마술 이렇게 잘하면 잘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버지는 술 드시고 엄마는 바쁘다고 한 번 하려고 하면 그리고 한 번 혼났대요. (18) - 맞벌이가 대부분일 경우에 자기가 집에서 기다리거나 학원을 가게 되는데 존중받아 보지 못한 애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부모님에게 증명을 해 보이거나 내지는 불편한 거를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의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16)
	과잉애정	- 부모들이 아이들이 독특한 행동을 창의력으로 생각해요.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창의적이다. 담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담임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1) - 부모님들께서도 워낙 가정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더 이빠라 하면서 키우는 경향이 있어서 (9)
학교	품성교육의 부재	- 품성을 무슨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어떻게 교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16)

영역	의미범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갖추지 못한 인성들인데 그거를 학교에서 안아주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거죠. (4) - 품성을 줄만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어떤 환경이나 시간이나 어떤 물적인 그런 자원이 제공을 해줬느냐 그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다면 그걸 물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7)
	교사·지도자의 품성 부재	-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강사를 제가 양성을 하잖아요. 강사들이 배려를 몰라요. (13)
	경쟁위주의 학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 에서 협동학습을 강조해요. 협동을. 그런데 협동을 강조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교실 현장에서는 6모둠과 7모둠, 8모둠, 9모둠 경쟁을 시키는 거죠.(중략)그런데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봐요. 스트레스가 품성을 다 망치는 게 아닌가(8) - 사회환경이나 시대상황이 바뀌면서 그게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너무 쫓아가려고 하는 게 버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채찍질하는 사회의 산물이 아닐까(7)
	수평적인 교실 분위기	-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 수평적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른이나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직관계 인데 근데 이제 수평적으로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위아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15)
사회환경	학생들의 발언권 강화	- 요즘 애들이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런데 그걸 뭐 되바라졌다, 싹수가 없다고 말할 거냐. 그런데 개네들 입장에서 장난한 건데 어른들 입장에서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고 규정짓는 다는 거죠.(10)
	공동체 의식 결여	- 우리 사회 전체가 남의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입장이 되어야하는데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버리면 애들에게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시켜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6)
개인요인	낮은 자존감	- 잘 못해서 문제가 되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아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8)
	좋은 품성행동의 실천동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의 개념을 봐준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자기보다 확실히 약한 애들에게는 배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려를 하지 않아요(18) - 어쨌든 여기 많은 것들을 대부분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내가 해야겠다는 이게 없는 거죠. 동기라고 해야 하나?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게 잘 없어요(10)
	자기감정에 대한 미분화	- 내 감정을 잘 몰라서 그냥 속상한 것도 화난 거고 다 화나는 거예요.(11)

3. 학년별 필요한 덕목의 차이

영역	요약
차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과 고학년이 나눠질 필요성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예요. 어려워요. (13) - 저학년 때에는 배려나 질서, 준비, 예의와 같은 기본적인 덕목을, 고학년에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인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덕목을 길러줘야 합니다.(7) - 중학년이라고 하면 배려심이 이제 주가 되어야하는 것 같고, 5학년 6학년으로 올라가면 자기 조절이 추가되어야 하는 데 아닌가 싶어요.(2)

영역	요약
차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발달 시켜야 하는 품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15). - 저는 일단 저학년과 고학년이 발달시켜야할 품성이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11) - 덕목이라는 것을 아기 때부터 키워지잖아요. 저학년 고학년에 나뉘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13) - 저는 고학년이나 저학년이나 똑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 똑같은 거보다 같은 덕목을 정해서 지도해야할 것 같고 남에게 그런 민폐 안주는 것 피해 안주는 것을 초등학교 시절에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8) - 방법도 뭐 거의 다 10학년이나 6학년 다 유치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움직여야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도 너무나 환호하고 그런데 대부분 몸으로 움직이면 환호하고 동참하더라고요.(8) - 그래서 다른 교과 과목은 요새 반복이라고 해서 나선형으로 하거든요. 반복 하면서 조금 더 없어지고 하거든요. 애를 조금 저학년부터 해서 아주 쉽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워야 하거든요.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통하는 기본적인 덕목은 갖고 그걸 운영하는 방법은 수준의 차이를 두고...(2) -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성인까지 따로 갖고 있어야할 인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인성인데.. (중략) 초중고 학생 해서 맥락으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저학년이 할 수 있는, 각자 할 수 있는 활동이 다르잖아요. 고학년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또 다르잖아요. 활동들이 다른 거지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4) - 원가 자기 조절이 고학년에 필요한 거 같지만 어릴 때부터 되야지 되는거지. (2)

4. 현장에서의 품성교육 운영실태

영역	의미범주	요약
교육운영	일괄적 의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도 진로프로그램 몇 시간 학폭 프로그램 몇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되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구요.(15) - 전보다 더 요식행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자꾸 뭐 창체나 이런 것에 안전 교육 몇 시간 이상 뭐 무슨 교육 리더 교육 몇 시간 이상 무슨 교육 몇 시간 이상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자꾸 잡으라고 강요? 비슷하게. 실수 확보를 해야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 이라던지 잘 된 것들 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것들이 따라 오는데 ...그것 때문에 정작 애들과 필요한 인성 교육은 잘 안 된다.(10) - 동영상을 제시해줘요. 위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그러라 더 상위기관에서는 일 년에 몇 시간 정도 해라 이 정도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년 분단이나 학년에서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시수로 잡아/ 그럼 그 시간에 실제로 수업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업 내용이나 방충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거 몇 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8) - 저희 아이들 보니까 아침마다 오늘 기분 표현 받는 것 같은 거 반에서 돌아가면서 꼭 이야기하기 하게 되어 있나 봐요.(7) - 아침 수업 시간 전에, 하면 아이들이 자기감정을, 오늘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내 감정을 드러냄으로서 자기의 스트레스도 없애고 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출석표가 많은 효과가 있었다.(1) - 저희 학교는 정직, 약속, 용서 왜 정약용 배서 아시죠? 교육감이 부르짖는. 그런데 요, 저희학교에서 그걸 한달에 한번, 정직, 약속, 용서 그걸 자신이 지킬 것을 적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정말 지켰는지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건데 그것도 그래

영역	의미범주	요약
		<p>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이 내려와서 행복 출석부를 하라고 했는데 그전 학교랑 이번 학교는 둘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 담임선생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시구요, 그거를 아침 조회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일일이 감정을 물어보냐 안되면 뭐 자석 같은 걸로 자기 꺼를 붙이라고 예시를 줬는데 선생님들이 우선 많이 반발하셔서 아직 잘 안되고 있구요.(5) - 정약용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정직 약속, 용서 같은 경우 저희 학교에서도 생활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리더쉽 다이어리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한 달에 자기 생활습관을 체크하고, 자기감정을 쓰고 어떤 이런 생활고는 있음에도 아이들이 이걸 몰아서 하고 숙제처럼 해서 잘 되지 않고 또 학교 선생님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 학교도 그렇고, 이번 학교도 그렇고 그냥 추진을 하지 않았고(5) - 왜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 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이들과 나누면서 마음이 동해야 기억에도 오래 남을 텐데 종이에 쓰면 그냥 버리고만 말고 전혀 마음의 움직임 없이 끝나니까 선생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정말 요식행위처럼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략) 결과물 제출하고 상을 받기 위한 거로만 끝이 난다는 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10) -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정말 통폐합되면 좋을 것 같고,(2) - 학교 선생님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구요.. (5)
	교사의 자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한테 사자소학을 해요.(8) - 저희는 도덕시간에 책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덕목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앉아서 869도 하고 대개 유치한 게임인데 대개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도덕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기소개 하면서도, 이제 자기소개라는 게, 품성, 이런 게 결국은 친구에 대한 무슨 어떤 관심이냐 그런 것도 일종의 품성일수 있잖아요.(7) - 인성 조회라고 해서 매주 아침에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런 것들을 매주 틀어주고 있어요. - 학부모 상담을 할 때 저는 아이들 내면을 담임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미술, 아이들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주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학부모 상담을 해요.(1) -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교과 시간에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하루에 3~4시간씩 기본적인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또 친구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많이 느끼더라고요.(1) - 개인적으로 이야기 시간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 전달법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도움 되긴 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효과적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2) - 학생들하고도 매일 아이들한테 홈페이지에다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좋은 일 가장 뭐 친구의 칭찬이라든가 좋은 일, 감사한 일을 항상 적으라고 해요. (1)
	단회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단회적이예요.(13) -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강화도 받고 실천의지도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그 순간만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이지도 않고 다시 아이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실효성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5)

영역	의미범주	요약
	전문상담 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을 기타 또래 상담이나 집단상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가족캠프할 때 또 그 부분에서 다루어 주고 있죠. 학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교육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3) - 저 같은 경우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정규과정 수업에서는 하지를 못하구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품성이나 인간관계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해서 상담을 해주구요.(3)
	수업내용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한 담임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활동에서 녹여 넣으려고 해요. (4) - 협력 학습을 많이 하거든요. 모둠별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싸워요. 자기의 생각만 드러내요. 그런데 싸우면서 아이들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도 없고 갈수록 친해져요. (1) - 6학년에서는 선생님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주제 통합 수업을 하면서 공동체 수업에 녹여서 저희만 색다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시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시상을 한명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단체적으로 공동체 저희는 배려의 말 국어 수업하고 연계해서 역할극 하기로 했었고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피켓 만들기 활동을 했었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물론 시상을 했지만 시상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품성교육으로 실제적으로 다가갔다고 생각했거든요(6)
학교구성원의 품성교육 인식부족	문제가 중심의 집단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성 프로그램을 하면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을 모아요.(19) - 집단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문제 있는, 선생님들 다루기 힘든 아이들 모아서 줘요(16) - 학교에서 정말 이 애들은 품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모아요. 정말 12명의 사희성 떨어지고 산만하고 폭력적이고 짜증 섞여있는 아이들을 모아줘요.(12) - 집단을 같이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모아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15)
	열악한 교육장소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를 주시는데 이따 만한 책상을 옮기기도 힘든 책상을 두고 애들을 앉혀 놓으신 거예요. 애들은 밀수도 없는데. 어디다 치울 수도 없는데 이상한 장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16) - 교실을 차라리 주시면 좋겠는데 교실이 여유가 없거나 그래서 과학실도 책상이 막 그래요. 장소 배려를 안 해주시거나.(15)
	아이들 참여가 어려운 시간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들어가면 방과 후에 줘요. 근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아요(16).
	아이들의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년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해도 유치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15)
교사 및 지도자의 어려움	시간이 부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면에서는 40분밖에 안되니까 굉장히 어려운거죠. 핵심만 전달하려고 하면 그게 도덕적인 교육이 되버리는 거예요.(12) -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회기가 부족하다는 거. 이거를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집단상담처럼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매사 시간이 부족하다. (3) - 제가 인성 부장 하다보니까 뭐 통일 교육부터 해서 뭐 블루밴드 뭐 요즘 엄청 많아요. 부가적으로 할 일만 자꾸 던져주니까 애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4)
	시수 확보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품성도 들어가거든요. 중학교엔 아침 자습시간 아침 8시에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새벽에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이 되요. 근데 초등학교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18) - 교사 개인이 좋아해서 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수 확보가 어려운 거구요. (5)

영역	의미범주	요약
	인력이 부족함	- 인력도 부족하고 나 혼자 다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안타깝죠. (3)
	역할의 혼란	-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상담자의 모습을 프로그램 내에 보이려고 했다가 다시 교육자로 왔을 때는 상담자는 다 경청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는데 담임으로 돌아왔을 때는 교실 안에서 행동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교육과 상담을 혼재 되어 있었었나 봐요. (5)
	byoll연수 접근성 부족	- 선생님들 편한 연수 방법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구로 지금 8월 달에 1박 2일로 생활부장 연수를 가야하는데 대구에서 폭력 연수를 하거든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4) - 저는 작년에 이거 올틴 공문 내려온 거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는데 시간이 저희 근무 시간이라구요. 오전이라서 신청을 못했어. <그게 직무연수가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교사들이 가볼 수 없는 시간에 되어있더라고요.(5) - 아무리 프로그램 개발을 해도 지도자 교육이 직무연수가 안되면 보급되기가 어려워요.(2) - 사실 원격 연수를 만들면 좋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예방프로그램이예요(3).

5. 효과적인 개입방안

영역	의미범주	요약
운영형태	집중 캠프형	- 10박 6일씩,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대대반이 짜서 대대에서 10박 6일 내내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거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6)
	교과활동 모듈형	- 프로그램이 1회기부터 6회기대로 순서프로그램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갖다 써요.(13) - 은연중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고 할 수 있는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6) - 그 다음에 그게 교과 주에서 어떤 교과에 어떤 단원이랑 연관이 되는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6) - 실제적인 품성교육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도덕이, 교재가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과 선생님이 구성을 해주시면서 품성교육을 아시고 상담 전공하신 분이랑 접목을 시켜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2)
	전문가 집단상담	- 품성교육 개발 프로그램 개발로써 학교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상담을 좀 해주시면 정말 그 기회를 좀 더 많이 해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90분 기준으로 한 시간씩 9번을 하셨는데 괜찮았어요.(9) - 선생님 수업이 없는 날에... 현장 선생님들과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회기도 많이 하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도. 한 9회기 .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면 9회기.(8) - 회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3회기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짧으니까. 한 번 하면 한 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해서 한 3회기 이상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집단 인원은 저희가 심성수련 할 때 한 10명 정도 하거든요. 한 반을 세 조로 나눠서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3)

영역	의미범주	요약
프로그램 구성	풍부한 사례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적으로 뻘한 스토리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12) - 사례도 선생님이 주신 교재 보시면 좀 어려운거 많아요, 어떻게 공감해야하는 건가를 몰라요, 그럴 때 그 저학년 공감사례, 선생님들처럼 학교에 사례를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례를 직접 도입을 해서 해주면 우리같은 강사가 조금 더 쉽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또 너무 고학년한테 얘기같은 사례를 주면 “아 우리한테 뭐하는 거예요.”이라는 거, 좀 더 고학년에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사례가지고 오면 충분히 아이들에게 접근성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13) - 역할극이 효과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조금 더 규정화 시키지 말고 그냥 학교 장면에서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12) - 그리고 이제 조금 범위로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일상생활이나 일상 주변 환경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7) - 인성 조희라고 해서 매주 아침에 TV 동화 행복한 세상 이런 것들을 매주 틀어주고 있어요.....애들이 저걸 보고 와 달을 건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분 정도 생각하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해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10)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가 어려워. 언어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풀어서 해주니까 아이들이 좀 더 들어가서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죠.(13)
	학년에 맞는 초점화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학년과 저학년의 품성발달에 있어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5) - 저학년은 정직이나 배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학년은 자기 조절 영역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18). -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야 해요.(11) - 인터넷 관련해서 조절이라면 저학년 아이들은 그것보다 간단한, 게임의 종류를 다르게 한다면 똑같이 게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게임조절문제에서는 고학년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장면들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11) - 저학년에 자기조절보다는 배려라는 프로그램이 저학년에 됐으면 좋겠고, 고학년에 있어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기조절이 백퍼센트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요.(13) - 저학년일수록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그런 것은 나쁜 행동이고 이런 거는 친구를 기쁘고 더 좋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14) - 고학년일수록 공감이란 배려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반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소속 반, 공동체이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14) - 학년 별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구분해서 놔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하기도 좋구요.(6)
교사 및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결과물을 교실에다 붙여 놔어요. 담임선생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보면 대략 어떤 걸 했는지 아시니까 그 반 같은 경우는 그게 일주일 동안 그걸 좀 강화시켜주시는 그런 계기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15) 	

영역	의미범주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같이해요. 그 선생님이 부탁하면 같이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보셔서 이후에 프로그램을 경험하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고 할 수 있게 촉진해주시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효과적이려면 그렇게 해야한다하시면 오시거든요.(13) - 회기 중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좀 어떻게 연결시켜서 뭐가 한번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게임이라던지 미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14) - 선생님은 2명 정도 필요해요. 제가 한 학급에 담임선생님이라 들어 올 때랑 아닐 때랑 달라요. (?) - 품성교육이 교사만 가지고 절대 안 되잖아요. 교사랑 학부모랑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학부모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1) - 학생, 부모, 교사가 함께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4)
	다양한 신체활동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뭔가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17) - 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초등생들은 재밌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12) - 절실함을 고집어내려면 일단 저는 접근법이 아이들한테 지금 놀이기, 아이들에게 호감이 가는 게 놀이잖아요. 감각이나 오감을 자꾸 자극하는 뭐 이럴테면 요즘에 학교에서 워낙 예술 활동이나 뉴 스포츠나 이런 여러 가지 신체활동이나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7)
	토론중심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해가는 것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17)
집단구성	학급단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주일에 한 시간 혹은 2주에 한 시간, 2주에 2시간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애초에 교육과정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4학년 한 학년은 학년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게 써 주고 학급을 데리고 하니까 보통20에서 30명씩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활동을 바꿔서 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인원수가 많고 또 책상이 있는 상태니까, 책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활동은 어렵거든요.(2) - 그렇죠. 학급단위로 쓸 수 있는 거랑 상담에서 쓸 수 있는 거랑 약간 변형된 걸로 할 수 있게 해주심 좋죠.(4) - 시기는 예를 들어서 학급 특색 사업으로 안한다면 저희 학교 첫째 주가 학교 적응기간이거든요. 그 때 한 일주일 동안 한 10차시라던지 15차시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면 잘 활용이 될 것 같아요.(4) - 학기 초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상담자는 담임이에요. 담임. 초등학교에서.(1)
	소집단 형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8명 정도가 10명 내외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번 같은 경우에도 개인 상담을 하면서 이게 인원이 많은 거 보다는 조금 한 명씩 보듬어 주는게 좋아요.(19)
	학급을 여러 소집단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을 받고 선생님 얘기하신대로 학급을 나누는 거죠.(?) - 한 반을 세 조로 나눠서 근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0명씩 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해서 10명 전후.(3)
	품성의 수준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긍정적인 아이들을 섞어 주시는 학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긍정적인 아이들이 좋은 영향들을 내보내주고 하니까 요 아이들도 같이.(18) - 정말 효과적인 부분이 언젠가면 긍정적인 아이들을, 괜찮은 모범적인 아이들을, 섞고 품성이 필요한 아이들을 섞었어요.(12)

[부록 3] 초등학생 품성개발 유형분류조사 덕목 진술문 목록

번호	진술문
1	어른들의 말을 경청한다
2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3	인사를 잘한다
4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른척하지 않는다
5	친구가 인정받는 것을 받아들인다.
6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소외시키지 않는다
7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한다
8	물건을 습득하면 주인을 찾아준다
9	내가 한 행동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10	약한 친구를 도와준다
11	화가 날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12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13	나 자신이 화가 난 것을 알아챌 수 있다
14	내 잘못에 대해 친구에게 사과한다
15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한다
16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말한다
17	친구를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
18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규칙을 잘 지킨다
19	갈등이 일어났을 때 잘 대처하고 해결한다
20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21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22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배운다
23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안다
24	나의 소신과 생각을 표현한다
25	주변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는다
26	타인의 배려에 대해 감사할 줄 안다
27	내가 모르는 사람도 돕는다
28	나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29	나 또는 타인과의 약속을 지킨다
30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31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번호	진술문
32	수업시간에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한다
33	선생님의 지시사항을 잘 따른다
34	친구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35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
36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친절하게 알려준다
37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나눠주거나 빌려준다
38	조별활동을 할 때 팀을 잘 이끈다
39	친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안다
40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41	욕이나 은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42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
43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
44	친구의 입장을 배려해서 부탁한다
45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46	공중도덕을 지킨다
47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는다
48	친구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49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0	자기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
51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52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한다
53	유머감각이 있다
54	잘못된 행동에 대해 충고한다
55	학급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
56	내 차례를 기다린다
57	해야할 일을 한 뒤에 논다
58	모둠활동을 할 때 잘 협력한다
59	좋지 않은 기분을 잘 떨쳐버린다
60	학교의 규칙을 잘 따른다
61	내가 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받아들인다
62	친구가 슬플 때 기운을 내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63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줄 안다
64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

[연구설문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온라인 조사는 초등학교 시기에 습득해야 할 품성덕목을 탐색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품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전문가들이 활용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조사는 1)64개의 품성덕목 문장을 분류하는 단계와 2)분류한 유형을 명명하고 중요도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품성덕목 문장 분류는 최소 2개이상 ~12개 이하의 주머니개수 범위 내에서의 자유롭게 분류해주시면 됩니다.

총 20~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사를 마치고 휴대폰번호를 남겨주시면 해당 번호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스타벅스 마이스 카페라떼 Tall)을 보내어 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다음'을 클릭하시고 온라인 조사를 시작해주시시오.

(전체화면으로 크기를 조절하셔야 설문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연구주제 : 초등학교 품성개발 덕목 유형화
- ◆ 연구진 : 소수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조교수)
이상현(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양대희, 김혜영, 성버리(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폭력예방팀 (02-2250-3095)

다음

[설문자 인적사항]

초등학생 품성계발 덕목 유형 분류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성별 : 남(), 여()

연령 : 만 ()세

전공 :

- 교육학
- 심리학
- 상담학
- 사회복지학
- 기타

소속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초등학교
- 기타

직책 : ()

근무연수 : (년)

이전

다음

[부록 5] 이타성 척도

◎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 **하나**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장애자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을 도와준 적이 있다.	1	2	3	4	5
2	친척집이나 친구가 이사하는데 도와준 적이 있다.	1	2	3	4	5
3	일할 능력이 없어 길가, 터미널, 지하도 등에서 도와달라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다.	1	2	3	4	5
4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5	내 일이 밀려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잘 도와주는 편이다.	1	2	3	4	5
6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적이 있다.	1	2	3	4	5
7	보답을 바라지 않고 친구의 어려운 일을 도와준 일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반이나 학교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주 돕는 행동을 한다.	1	2	3	4	5
9	나는 친구가 아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 준다.	1	2	3	4	5
10	나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공부나 과제를 도와준 적이 있다.	1	2	3	4	5
11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도와주었다.	1	2	3	4	5
12	나는 내 친구가 상이나 칭찬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다.	1	2	3	4	5
13	친구가 몸이 아플 때 양호실에 데려가거나, 가방을 들어준 적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자선기관이나 교회, 또는 다른 모임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참가한 적이 있다.	1	2	3	4	5
15	친구를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주 도와주는 편이다.	1	2	3	4	5
16	나는 낯선 사람이 들고 가는 물건을 들어준 적이 있다.	1	2	3	4	5
17	우리반, 우리 학교를 깨끗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게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1	2	3	4	5
18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싶은 때가 있다.	1	2	3	4	5

[부록 6] 정서조절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해당하는 것 **하나**에 ○표 해주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실제의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잘 조절하는 편이다.	1	2	3	4	5
2	나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일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오르곤 한다.	1	2	3	4	5
3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표현하는 편이다.	1	2	3	4	5
4	나는 불쾌한 기분이 들면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5	나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다투면 화가 풀리지 않는다.	1	2	3	4	5
6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다른 일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7	나는 우울하거나 슬퍼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한 적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부록 7] 학교규칙 준수 척도

◎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고 자신과 가장 비슷한 것 **하나**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간 그렇게 한다	보통 으로 그렇게 한다	꽤 그렇게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
1	나는 교실에서 조용히 생활한다.	1	2	3	4	5
2	나는 복도나 계단을 다닐 때 우측통행을 한다.	1	2	3	4	5
3	나는 청소당번 활동을 열심히 한다.	1	2	3	4	5
4	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조심히 사용한다.	1	2	3	4	5
5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1	2	3	4	5
6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1	2	3	4	5
7	학교는 질서와 규칙을 너무 강조한다.	1	2	3	4	5
8	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5

[부록 8] 자기존중 척도

◎ 아래 문항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응답 **하나**에 **○**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1	2	3	4	5
4	나는 현재의 나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나는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	나는 어려운 일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부록 9] 공감 척도

◎ 다음 질문은 평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시고 **당신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만일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를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어떤 문제에 대해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때로 나는 친구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지 상상해 봄으로써 그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고 두 측면 모두를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5	나는 때로 '다른 편'의 관점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6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7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나는 대개 잠시나마 그의 입장이 되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8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그에 대해 일종의 보호심을 느낀다.	1	2	3	4	5
9	누군가가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것을 보아도 그들에게 동정심이 별로 생기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1	2	3	4	5
10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볼 때 따뜻한 염려의 느낌을 가질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5
11	나는 스스로를 매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라고 말하곤 한다.	1	2	3	4	5
12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해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3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 나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는 적은 별로 없다.	1	2	3	4	5
14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자주 깊이 감동한다.	1	2	3	4	5

[부록 10] 배려행동 척도

◎ 각 문항을 읽어가면서 **그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1~5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골라 **○**표해 주십시오.

<p>만약 10번의 기회가 있다면, -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1.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1~3번 정도 하는 경우 → 2. 약간 그렇게 한다. - 4~6번 정도 하는 경우 → 3. 보통으로 그렇게 한다. - 7~9번 정도 하는 경우 → 4. 꽤 그렇게 한다. - 10번 모두 그렇게 하는 경우 → 5. 항상 그렇게 한다.</p>	
---	--

번호	문 항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간 그렇게 한다	보통 으로 그렇게 한다	꽤 그렇게 한다	항상 그렇게 한다
1	깜빡 잊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한 친구에게 여분으로 가져온 준비물을 나누어 준다.	1	2	3	4	5
2	뛰어가다가 실수로 친구의 가방을 툭 쳐서 떨어뜨렸을 때 “미안해”라고 말한다.	1	2	3	4	5
3	학교 화장실이나 수돗가에서 손이나 얼굴을 닦을 때 옆으로 튀기지 않게 한다.	1	2	3	4	5
4	급식시간에 맛있는 음식이 조금 남아있을 때 뒤에 줄 서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덜어간다.	1	2	3	4	5
5	양손에 물건을 들고 가는 나를 보고 친구가 먼저 문을 열어줄 때 “고마워”라고 말한다.	1	2	3	4	5
6	친구의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지 않는다.	1	2	3	4	5
7	기운없이 앉아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괜찮니?” 하고 말한다.	1	2	3	4	5
8	좁은 복도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을 통과해 지나갈 때 “미안해”라고 말한다.	1	2	3	4	5
9	친구가 없는 곳에서 흉보지 않는다.	1	2	3	4	5
10	친구가 떨어뜨린 연필이나 나의 자리까지 굴러올 때 주워서 친구에게 준다.	1	2	3	4	5
11	친구가 말하거나 발표할 때 끝까지 잘 들어준다.	1	2	3	4	5
12	조용한 교실로 들어갈 때 조용하게 걸어간다.	1	2	3	4	5

Abstract

Development of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ently, as youth problem occurs earlier than before and becomes more brutal, the interest in prevention is increasing. This is related to growth of nuclear families, double-income couples and dissolved family, which leads to poor education for children. For these reasons, many researchers have had a critical mind on the fact that less adolescences builds up characters essential in getting along with other people and suggested various way to resolve this problem. One of the suggestion i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develop characters of them from the time in elementary school. In developmental view, youth in elementary time accepts more cognitive information and mo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getting along with other people, so elementary time is the right time to develop one's character. However, being too abstract and broad concepts of character, compositions of them have never been investigated in scientific and systematic methods. Thus, the research aims at developing effective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by drawing necessary virtues for elementary senior year students.

First, to conduct current study, extensive literature survey was carried out to forge theoretical basis of the program. Then, focus group interview data from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experts were analyzed. In addition, using concept mapping method, character virtues were classified into meaningful categories. Secon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survey and demand survey, composition principles of the program were extracted and draft of the program was developed. Thir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evaluated through the test operation, the subjects were 43 4th to 6th grade students; they were

given a demonstrative program. The study found out that experiment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altruism, observance of school rules, self-respect, considerate behavior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opinions of participants and instructors and results of experts' supervision were reflected in modified final program.

The finding of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rranged various concepts and compositions of character; abstract concepts of character was categorized by concept mapping research methods and expert interview. In the end,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